

2020년도 제9기 역사문화시민대학

한민족의 전통사상과 정신문화

| | |
|--|--------------------------------|
| 2020년 6월 9일 - 18일 매주 화/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동구 미로센터)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대전 일대 문화탐방 |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2020년도 제9기 역사문화시민대학

한민족의 전통사상과 정신문화

| | |
|--|--------------------------------|
| 2020년 6월 9일 - 18일 매주 화/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동구 미로센터)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대전 일원 문화탐방 |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 프로그램

| 구분 | 일시 | 주제 | 강사진 |
|----------|------------------|----------------------------------|-----------------------|
| 문화 강좌 | 6. 9(화) 15:00 | 선비정신과 『주역』 , 지금도 현재 진행형? | 조 우 진 (전남대 교수) |
| | 6.11(목) 15:00 | 역사 속 꽃 피웠던 불교 문화 | 이 계 표 (조선대 교수) |
| | 6.16(화) 15:00 | 'NO 재팬'으로 들여다본 한민족의 정기와 일제 잔재 | 김 순 흥 (광주대 교수) |
| | 6.18(목) 15:00 | 예술로 만난 민중 신화와 사상 | 김 봉 준 (화가, 신화미술관장) |
| 답사 | 6.23(화) | 대전 일대 문화탐방 | |

■ 목 차

| | | |
|------|--------------------------------|----|
| 제1강좌 | 선비정신과 『주역』 , 지금도 현재 진행형? ----- | 07 |
| 제2강좌 | 역사 속 꽃 피웠던 불교문화 ----- | 21 |
| 제3강좌 | 'NO 재팬'으로 들여다본 한민족의 정기와 일제 잔재 | 37 |
| 제4강좌 | 예술로 만난 민중 신화와 사상 ----- | 49 |

제1강좌 :

**선비정신과 『주역』 ,
지금도 현재 진행형?**

조 우 진
(전남대 교수)

선비정신과 『주역』, 지금도 현재 진행형?

조 우 진(전남대 교수)

1. 들어가며

우리의 삶은 항상 걱정의 연속이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걱정이 하나 더 생긴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걱정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걱정의 의미는 환(患)자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동중서(董仲舒: BC176~BC104)는 『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환(患)자의 의미를 “하나에 머무는 것을 충(忠)이라고 하고, 두 개의 충(忠)을 잡는 것을 환(患)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충(忠)이 하나가 아님을 걱정하는 것이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말미암아 생긴다”¹⁾고 하였다. 환(患)자는 마음의 중심[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두 가지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은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사람은 걱정을 없앨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은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동양철학에는 인간이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늘 하늘과 인간의 합일[天人合一]을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과 하늘의 합일이 가능한가? 하늘은 늘 선을 행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늘 악을 참지 못하고 끌려가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하늘과 악을 행하는 인간이 어떻게 합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일이라는 말이다. 합일의 의미는 이상적인 목표인 하늘이 존재하고 그 하늘을 인간이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늘과 합일하는 것은 바로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이며, 선비가 추구하는 길이다.

1) 동중서(董仲舒), 『춘추번로(春秋繁露)』 권12, 『문연각사고전서』 vol 181(대만: 상무인서관, 1988), 776쪽. “止於一者謂之忠 持二忠者謂之患 患人之忠不一者也 不一者故患之所由生也”

2. 선비정신

선비라는 말의 어원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에 최초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비의 유래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비라는 말은 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성리학(性理學)을 말한다. 조선은 철저하게 리(理) 중심의 성리학 체계로 만들어진 나라이다.²⁾ 건국이념이 바로 유학 즉 성리학이다. 그러므로 선비는 학문적으로 성리학 이론을 섭렵한 지식인이다. 성리학은 “성즉리(性卽理)”를 이념으로 하는 학문이다. 성(性)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이고, 리(理)는 하늘의 이치이다. 즉 인간의 착한 본성과 하늘의 이치는 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선비는 성리학 체계를 이해한 최고의 지식인이다. 율곡 이이는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선비란 때를 만남과 만나지 못함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벼슬에 나갈 경우와 나아가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관직에 나아가 겸선하려는 자에는 세 가지 품류(品類)가 있다. 첫째 도덕이 몸에 배어 있어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하여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堯舜)과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요순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나 자기의 몸가짐에 모두 정도(正道)로써 하는 사람은 대신(大臣)이다. 둘째 항상 나라만 걱정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진심으로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면 쉬움과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행하여 비록 정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끝까지 사직(社稷)을 편안하게 하려는 사람은 충신(忠臣)이다. 셋째 그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직분(職分)을 지킬 것을 생각하고, 임무를 맡았을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기를 생각하여, 그릇은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부족하더라도 재간(才幹)이 한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간신(幹臣)이다.....관직에서 물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자에도 세 가지 품류가 있다. 첫째 불세출(不世出)의 재주를 품고 한 시대를 구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홀로 도(道)를 즐기어 마치 보옥을 궤(櫃) 속에 감추어 두고 살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는 자는 천민(天民)이다. 둘째 스스로 학력(學力)의 부족함을 헤아려 학문의 진취를 추구하고

2) 이(理)학 중심의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도리(道理), 의리(義理), 윤리(倫理), 성리(性理) 등이 개념이 등장한다.

스스로 재간이 우수하지 못함을 알아서 재능의 향상을 추구하고 수양하면서 때를 기다리되 경솔하게 나서지 않는 자는 학자이다. 셋째 고결(高潔)하고 청개(淸介)하여 천하의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초연(超然)하게 숨어 버려 세상의 잡다한 것을 잊고 사는 자는 은자(隱者)이다.”³⁾

율곡이 말하는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베풀을 하거나 자기 수양을 하는 자이다. 이것은 바로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론 것이다. 선비정신은 선비의 실천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유교문화체험연구교재』에 선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선비는 유교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며 자신을 완성해 나간 사람이다. 둘째, 선비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개혁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사람이다. 셋째, 벼슬하지 않아도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넷째, 선비는 도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다섯째, 선비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여섯째, 선비는 어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일곱째, 선비는 이익보다 정의를 실현하여 건리사의 정신의 소유자다.”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선비의 모습은 유가의 도덕적 이상적인 인물로 성인과 군자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선비정신은 어떤 기준에 따라 완성되는 것일까? 유가철학에서 천인합일로써 도(道)와 덕(德)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선비의 유학적 삶은 천인합일을 목표로 사유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3. 천인합일로써 도와 덕

1). 도(道)의 개념

도(道)라는 글자의 의미는 ‘길’이다. 길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길은 사람이 다니면 바로 생긴다. 즉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길은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흔적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통해서 어딘가로 가고, 여러 경험을 만난다.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도는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늘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 도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와 변화의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 등을 가진다. 특히 이것은 『주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형이상학적 의미의 도는

3) 이이, 『율곡전서』 제15권 「잡저」, 「동호문답」.

4) 『유교문화체험연구교재-선비정신』(학부모용), 문화체육관광부·성균관, 2011.

‘형이상자위자도(形而上者謂之道)’라는 것이 있고, 변화의 도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것이 있고, 실천적인 의미의 도는 ‘군자지도(君子之道)’라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도는 하늘의 형이상학의 의미로부터 변화의 의미와 인간의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중용』에서는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天道]이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인간의 도[人道]이다.”⁵⁾라는 말이 하였다. 하늘의 도는 성실함이다. 하늘은 성실하게 행하여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따뜻해지고,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온다. 즉 하늘은 항상 성실히 운행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하늘의 성실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변화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된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저장을 한다. 하늘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법칙을 위배한 적이 없다. 인간이 이러한 하늘의 성실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실히 행하는 것[誠之]’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실함은 ‘속이지 않는 것[不欺]’이고, ‘쉬지 않는 것[不息]’이고, ‘망령되지 않은 것[無妄]’이고, ‘진실한 것[真實]’이다. 즉 인간은 하늘의 성실함을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가 합일 되었을 때 바로 유가의 이상적인 인간이 완성된다. 이것은 바로 유가 수양론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유가에서 도의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원리의 의미보다는 실천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것은 바로 선비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념이다.

2) 덕(德)의 개념

인간의 덕은 어디로부터 소급되는가? 인간은 바로 하늘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늘의 덕은 무엇인가? 이것은 『주역』 건괘(乾卦) 괘사(卦辭)인 ‘원형리정(元亨利貞)’이라는 사덕(四德)이다.⁶⁾ 이 사덕은 자연현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나고, 도(道)라는 길을 통해서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덕성(德性)으로 등장한다.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5) 『중용』 “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

6) 4덕: 『자하전』에 “원(元)은 시작이고 형(亨)은 형통이고, 이(利)는 화합이고 정(貞)은 바름이다[元始也 亨通也 利和也 貞正也]”고 하였다.(『십삼경주소』 vol.1, 『주역정의(周易正義)』, 1쪽.) 정이천 또한 이와 같이 네 가지 덕목으로 보았다. 그런데 주희는 “그 점이 마땅히 크게 형통함을 얻고 반드시 이로움이 정고함에 있다[其占當得大通而必利在正固]”고 하여 두 가지로 해석하였다. 『주자전서』 vol.1, 『주역본의(周易本義)』, 30쪽. 그리고 명나라 내지덕(來知德)은 “원(元)은 큼이고 형(亨)은 형통이고 이(利)는 마땅함이고 정은 바르고 견고함이다. 원형(元亨)은 천도의 본연이며 수이다. 이정(利貞)은 인간사의 당연함으로서 이치이다(元亨者,天道之本然,數也.利貞者,人事之當然,理也)” 하였다.(『역경래주도해』 상(上), 237쪽.)

것이다. 인간은 하늘의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른 덕을 본받았기 때문에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천인합일로서 덕성이며, 우주론이 인성론으로 이행한 것이다.

『중용』의 첫 구절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天命之謂性]’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은 인간에서 착한 덕성을 부여하였으며, 인간이 그 덕성을 보존하고 확충해 가는 것이 바로 천인합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덕성에 따라 실천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라는 말이다. 인간이 하늘이 부여한 덕성을 쫓는 것이 도리이다. 더 나아가 다스리는 사람은 이러한 도리를 닦아 인정(仁政)을 베풀고 백성을 교화한다[修道之謂教]. 이것은 공자가 말하는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德治]’이고, 맹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왕도정치(王道政治)’이다.

『대학』의 첫 구절에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고, 지극한 선에 그치는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親民 止於至善]”고 하였다. 여기에서 밝은 덕은 하늘이 명해서 내려준 덕성이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바로 ‘몸을 닦는 것(修身)⁷⁾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신을 통해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나아가는 것이다. 평천하의 단계가 지선(至善)에 머문 것이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덕성을 밝혀 백성을 새롭게 하여 지극한 선에 그치게 한다.

덕은 『중용』의 논리에 의하면 하늘의 덕성인 원형리정을 인간의 덕성인 인의예지로 천명에 따라 부여된 것이고, 『대학』의 논리에 의하면 부여받은 덕성을 밝혀서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선비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3) 도덕적 수양

인간은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천인합일의 의미이다. 인간은 하늘의 덕성을 본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왜 착하고 아름답게 태어난 인간은 늘 악(惡)에 끌리게 되는가? 최종적으로 유학사에서 관심은 ‘왜 악이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악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진유가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쟁이 이루어진 뒤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중심에 서있는 문제이다. 유학은 단순히 악한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 악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7) 유가철학에서는 수신(修身)을 기본바탕으로 평천하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수신(修身)에서 수(修)의 대상은 조화로운 이상사회를 위한 덕성이자 결코 독립된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공자나 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악의 근원은 외물의 접촉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덕성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외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자는 '의혹되지 않는 것[不惑]'이라고 하고, 맹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않는 것[不動心]'이라고 하였다. 송대 성리학에서 주자는 인간의 덕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눈다. 본연지성은 본래 선한 것이고, 기질지성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주자는 악의 근원을 청탁(淸濁), 수박(粹駁)이라는 인간의 기질(氣質)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보았으며,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 하는 것[存天理去人欲]'를 주장한다. 사적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敬) 공부를 통한 수양이 중요하다. 주자가 말하는 수양은 '하나를 주로 하여 다른 데로 감이 없는 것[主一無適]'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가지고서 사사로운 인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인간은 하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즉 하늘의 모습에 따라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도덕적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계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선비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을까?

4. 음양 오행론

1) 음양이란 무엇인가?

음양이란 하나의 기(氣)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기(氣)의 영향을 받고, 기(氣)라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대체할 용어가 없어서 일지 모른다. 우리의 삶에는 천기(天氣)와 지기(地氣)가 있고 우리는 두 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기를 마신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부여한 기운이다. 배가 고프면 허기(虛氣)가 지는데 이 때 곡기(穀氣)를 채운다. 이 곡기가 바로 땅의 기운이다. 제 때에 맞는 곡기를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토불이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천기(天氣)와 지기(地氣)의 잘 받아들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기(精氣)를 받고 태어나고, 공기(空氣)와 곡기(穀氣)를 마시고 먹으며, 기력(氣力) 유지하다가 쇠하면 죽는 것이다. 태어났다는 것은 정기가 모였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기력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가 흩어지고 모이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다. 기는 바람으로 통해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움직이면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기(氣)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기(氣)를 느끼게 되면 아프다. 이것이 바로 감기(感氣)이다. 또한 동양은 기(氣)를 음양오행의 논리로 설명하여 미신으로 여기고 있지만, 서양은 기를 허공의 에너지로 보거나 양자역학과 같은 과학으로 발전하였다.

기(氣)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하여 작용한다. 이러한 음양이 원론은 『주역』의 핵심사상이며, 강과 유, 하늘과 땅 등으로 서로 짝하는 개념이다. 음양은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세계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 성장, 소멸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음과 양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비교하는 관계성에 따라 양이지만 음이 될 수도 있고, 음이지만 양이 될 수도 있다. 즉 남자와 남자를 음양으로 비교할 때 둘 다 양이지만, 소극적인 남자와 적극인 남자로 구분하여 음과 양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과 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정화 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왜 음양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대대의 개념들은 대부분 천지(天地)·일월(日月)·남녀(男女)·상하(上下)·좌우(左右)·강약(強弱)·선악(善惡)·동정(動靜)·진퇴(進退) 등과 같이 양음(陽陰)의 순서로 되어있다. “음양”이라고 쓴 이유에 대한 정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현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고대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음양이라는 말을 상용했을 것이다. 즉 어둠으로부터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관찰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문명의 시작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간다. 동에서 서로 간다는 것은 계속 밝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둘째, 역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음양은 일월설(日月說)로 관련된다. 시초점을 쳐서 궤를 만들 때 18번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의 효를 쌓아올린다. 역이라는 글자는 아래가 월(月)이고 음(陰)이며, 위가 일(日)이고 양(陽)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에 따라 읽으면 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설괘전』에 “역은 거슬러 헤아리는 것이다”⁸⁾는 말도 이와 통한다. 『논어』에서 “아래로는 인간의 도리를 배우고 위로 하늘의 도리에 통한다”⁹⁾는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도가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음이 양보다 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8) 설괘전』 3장. “數往者順, 知未者逆, 是故易逆數也.”

9) 『논어』 「헌문(憲問)」. “學而上達.”

음의 측면을 강조한다.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은 부드럽기 때문 부러지지 않고 강한 것은 뻣뻣하여 부러지기 쉽다. 그래서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¹⁰⁾라고 했다. 물은 부드러움의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부드러운 동시에 생명을 낳는 존재이다. 그래서 노자는 “골자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현묘한 암컷이라고 한다. 현묘한 암컷의 문은 천지의 뿌리이다”¹¹⁾라고 했다. 연약한 싹도 단단히 언 땅이나 딱딱한 나무껍질을 뚫고 나오고, 바닷가의 조약돌도 부드러운 물이 왕복운동하면서 만든 것이다.

2) 오행이란 무엇인가?

오(五)자는 다섯 가지 기호이다. 5라는 숫자는 3[天]과 2[地]를 합한 것으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의 이치가 담겨있다. 또 오(五)라는 한자는 이(二)와 십(十)이 합쳐진 글자이다. 이(二)는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다. 십(十)은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합하는 것이다. 즉 오(五)는 천지의 음양이 서로 사귀어 만물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이다.

『서경』에 5라는 숫자는 오사(五事), 오미(五味), 오행(五行), 오색(五色), 오채(五采), 오전(五典)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5는 세계를 분류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행(行)자는 왼발을 의미하는 자축거릴 척(彳)과 오른발을 뜻하는 자축거릴 측(亍)으로 구성된 것이다. 왼발과 오른발이 번갈아가면서 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오행(五行)은 다섯 가지 상징체계가 서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오행은 우주만물이 변화하는 틀은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만든 것으로 고대의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오행(五行)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행의 구체적인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경』에 “오행이란 첫 번째는 수(水)이고, 두 번째는 화(火)이고, 세 번째는 목(木)이고, 네 번째는 금(金)이고, 다섯 번째는 토(土)이다. 수(水)는 적시고 내려감이다. 화(火)는 불타오르는 것이다. 목(木)은 굽거나 곧음이다. 금(金)은 따르거나 변화함이다. 토(土)는 심고 거두는 것이다. 적시고 내려감은 짠 것이 되고, 불타오름은 쓴 것이 되고, 굽거나 곧음 신 것이 되고, 따르거나 변화함은 매운 것이 되고, 심거나 거둠은 단 것이 된다”¹²⁾고 하였다. 수(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10) 『노자』 8장. “上善若水水 善利萬物而不爭.”

11) 『노자』 6장. “谷神不死是謂玄牝, 玄牝之門是謂天地根.”

만물에 영양분을 주고 나니 짠맛만 남는다. 화(火)은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가 자기 몸을 태우니 입맛이 쓰다. 목(木)은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 열매를 맺으면 신맛이 난다. 금(金)은 변질됨으로서 온갖 물건들을 만들어내니 매운 맛이다. 토(土)는 대자연의 순환작용을 하는 것으로 단맛이다.

오행의 원리는 상행설과 상극설이 있다. 음이 있기에 양이 지나치게 왕성하지 않고 양이 있기에 음이 지나치게 쇠퇴하지 않듯이 오행도 또한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한다. 상생설은 오행이 수-목-화-토-금으로 무궁하게 순환하는 논리이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는 불을 일으키고, 타버린 재는 흙이 되고, 흙이 땅속에서 굳어 쇠가 되고, 쇠에서 물이 생긴다. 고대의 사유방식에서는 쇠에서 물이 생긴다. 쇠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어 녹이 슬어 부식된다. 수생목(水生木)은 물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목생화(木生火)는 나무로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화생토(火生土) 불로 태워 흙이 되는 것이다. 토생금(土生金)은 흙 속에서 금이 나오는 것이다. 상극설은 수-화-금-목-토로 이기는 것이다. 즉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고, 쇠는 나무를 자르고, 나무는 흙을 파고들고, 흙은 물을 가둔다. 수극화(水剋火)은 물로 불을 끈다는 것이다. 화극금(火剋金)은 불로 쇠를 녹인다는 것이다. 금극목(金剋木)은 쇠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이다. 목극토(木剋土)은 나무가 흙의 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토극수(土剋水) 흙으로 물을 막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상극의 이치에 따라 돌아간다. 화재가 나면 물로 불을 끈다. 불로 쇠를 녹여 다른 물건을 제작한다. 나무가 다 자라면 톱으로 잘라서 목재를 만든다. 나무를 심어서 땅의 황폐함을 막는다. 흙으로 재방을 쌓아 홍수를 막는다. 오행은 상생하는 가운데 만물이 생겨나고, 상극하는 가운데 만물이 완성되니 상생과 상극은 체와 용으로 통일된다. 상생 가운데 상극이 내재해 있다. 예를 들면 만물이 생겨나는 가운데 서로 죽이는 약육상식이 있다. 또 상극 가운데 상생의 이치가 있다. 예를 들어 물은 불을 끄지만 물이 자라게 한 나무는 다시 불을 피운다.

5. 음양오행과 우리문화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역의 음양오행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음양오행은 중국 고대의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우리의 생활상에 그대로 적용하여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12) 『서경』, 「홍범구주」.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우리의 국화는 무궁화(無窮花)이다. 무궁화는 끝이 없는 꽃, 영원히 피고 또 피어 지지 않는 꽃이다. 무궁(無窮)은 무극(無極)이며 태극(太極)이다. 가운데 꽃 수술은 태극을 상징한다. 태극은 세계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무궁화는 우주 만물의 생성을 상징하는 꽃이다. 『주역』의 우주관은 “역에 태극이 있고 여기서 음양→4상(四象)→8괘(八卦)→64괘(六十四卦)로 전개된다. 동양철학사에서는 태극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철학적 사유방식이 달라진다. 태극을 리(理)로 보면 이학자(理學者)가 되고, 태극을 기(氣)로 보면 기학자(氣學者)가 된다. 태극은 만물의 근원으로 천지가 생성하기 이전의 궁극적 본원을 말하며, 우주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원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무궁화 꽃의 수술은 세계를 설명하는 태극을 상징한다. 또한 무궁화 꽃은 한 마디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서 삼재(三才)를 상징한다. 삼재는 우주와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변화의 원동자로 작용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말한다. 삼재론은 자연계의 상징인 하늘과 땅에 인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인간을 하늘과 땅의 정신으로 끌어 올린 인간중심적 사유방식이다. 그리고 꽃의 색깔은 태극기에서 음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양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합하여서 만들어진 자주색이다. 즉 색은 음양의 원리로 형성된 것이다. 또한 꽃잎은 5개로 목화토금수 5행을 상징한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무궁화 꽃은 단순한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원리와 삼재의 이론을 담보하고 있는 우주의 꽃이다.

또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박영효(1882년)가 그린 것으로 1883년(고종 20) 조선의 국기로 채택되었고, 1948년부터 대한민국 국기로 사용되었다. 태극기는 모두 음양의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검정색 막대는 음이고 하얀색 바탕은 양이요, 태극 문형에서 빨간색은 음이고 파란색은 양이요, 건곤감리(乾坤坎離)는 모두 음양의 막대기로 이루어졌다. 태극의 모양은 지리적으로 남북의 38선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태극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기의 흐름이다. 태극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확산이고 발전이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분산이고 분단이다. 『주역』의 건태이진손감간곤 팔괘 가운데 건곤감리만 태극기에 배치하였는데, 건곤감리는 어떤 방향으로 두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는 괘이다.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곤은 땅을 상징하며, 감은 물과 달을 상징하고, 리는 불과 해를 상징한다. 태극기는 하늘과 땅이 만물을 탄생시키고 해와 달이 만물을 길러주는 원리를 담고 있다. 즉 만물을 낳아서 길러주는 근원은 천지일월(天地日月)이다. 또한 이것은 태음, 소양, 소음, 소양으로 사상(四象)을 상징한다. 또는 태극기를 큰 구도로 보면 사방으

로 괘가 있고 가운데 태극이 있어서 오행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렴계의 태극도(太極圖)와 장재의 서명(西銘)을 연상하게 한다.

다음은 우리의 문자 한글에 대해 알아보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주역』의 음양오행을 근거로 삼았다. 한글에는 전체적으로 『주역』의 원리가 숨어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解例本)의 제자해(制字解)의 첫 부분에 “천지자연의 원리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坤과 復 사이가 太極이 되고, 이 태극이 動하고 靜한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¹³⁾라고 했다. 한글은 우주 만물에 태극과 음양오행 원리가 있듯이 소우주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성음에도 이런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다. 한글은 소리는 물론 글자모양에도 음양오행 원리가 적용되는데 모음에는 음양의 원리가 자음에는 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다. 훈민정음의 원리는 성리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되었다. 그 근거는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啟蒙)』과 소옹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와 호광의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모음과 자음은 모두 음양오행의 이치에 의해서 완성된다. 『주역』의 원리는 쉽고 간단하는 것이다. 음양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인지는 서문에서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글을 알 수 있고, 멍청한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서울 수도의 4대문, 경복궁의 경회루, 경복궁 근정전도 모두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조선시대의 사유방식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음양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원리는 현대의 과학적 원리와는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남아 있다. 그 원리는 결코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6. 나아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선비들은 천인합일의 방식으로 통해서 사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며, 변화하는 현실세계를 바로 잡고자 했다.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 선비들이리(理) 중심의 성리학 이론체계로 구상한 나라이다. 그 이론 체계는 바로 「태

13) 『훈민정음』, 「제자해」, “天地之道, 一陰 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 太極, 而動靜之後爲陰 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 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 陽之理, 顧人不察耳.”

극도」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으로 드러난다. 선비들은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조선을 세웠다.

우리가 말하는 선비정신은 하늘과 인간의 합일을 통해서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역』의 음양오행의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와 함께 숨 쉬고 살아간다. 즉 우리의 문화 속에 선비들의 이상이 담겨있으며, 현재에도 선비정신이 흐르고 있다. 즉 선비정신은 조선개국—사화—의병활동—위정척사운동—3.1운동—광주학생운동—4.19혁명—5.18민중항쟁—촛불혁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강좌 :

역사 속 꽃 피웠던 불교문화

이 계 표
(조선대 교수)

역사 속 꽃 피웠던 불교문화

이 계 표(조선대 교수)

■ 불교란 무엇인가?

1. 들어가는 말
2. 호남불교의 역사적인 전개
 - 1) 백제말기 불교의 수용
 - 2) 신라중대 구례와 장흥의 화엄불교
 - 3) 신라하대 선종산문의 성립
 - 4) 고려후기의 불교결사
 - 5) 조선전기 사찰의 통폐합과 불사활동
 - 6) 조선후기 불교경향과 청허·부휴계 승려들의 활동
- 7) 일제시기 本山體制와 전통불교의 수호
- 8) 해방 후 僧團의 紛糾와 淨化運動
- 9) 本山體制와 叢林佛敎
3. 나머지 말

■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3보+3학

(1) 3보=불보+법보+승보

- ① 불보: 부처님(불상), 진리를 깨달아 열반을 성취했을 때
- ② 법보: 부처의 가르침(불경), 깨달음의 길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을 때
- ③ 승보: 승가(스님들), 깨달음의 길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을 때

(2) 3학=계(율)+정(선정)+혜(지혜)

- ① 계율: 소극적인 계율(5계 등 금지사항) + 적극적인 계율(권선, 권장사항)
- ② 선정: 참선(참구선정). 수행, 실천
- ③ 지혜: 불교의 지혜, 경전공부, 간경, 불교이론

(3) 3원

- ① 계율을 공부하는 율원
- ② 참선하는 선원
- ③ 간경하는 강원

(4) 총림: 3원+염불원을 갖춘 종합수행도량

(5) 한국의 총림

- ① 조계종의 7총림
- ② 태고종의 1총림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호남지역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호남불교를 체계화 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단편적인 유물, 유적에 대한 피상적인 기초조사에 그쳤을 뿐, 문헌기록과 불교문화를 精緻하게 분석하고 이를 사회구조와 관련시켜 불교사로 정리하려는 의도는 기대하는 것조차 아직도 遼遠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마냥 이 분야 연구의 성과물이 집적되기만을 기다리기에 머물러 있다면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화 하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분야가 커다란 누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호남지역의 불교는 신라말 선종의 도입과 禪門의 성립, 고려후기 결사운동, 조선중기의 의승군의 활동, 조선후기 講會佛敎와 禪論爭 등을 주도하여 한국불교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 특성과 방향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호남불교사의 정리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한국불교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긴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 호남불교의 역사적인 전개

1) 백제말기 불교의 수용

근초고왕의 다음대인 침류왕 때에 백제에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러나 호남지방은 왕도에서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불교가 전파되어 사찰이 건립되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의 불교는 중앙의 왕도를 중심으로 신앙되다가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불갑사, 무위사, 대흥사, 백양사, 화엄사, 불회사, 선암사, 관음사, 개천사 등이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한다. 이 기록들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들 절터에서 백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출토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빙할만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남지방에 백제시대의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정읍에서 백제불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정읍지방은 전근대시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남지방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동일한 생활문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지방에 백제시대의 불교가 전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지역의 거점에만 전파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교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백제시대의 불교유물, 유적을 발굴하고 후대의 문헌사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백제시대의 호남불교의 초기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2) 신라중대 구례와 장흥의 화엄불교

신라 중대의 불교계는 이론불교가 성숙되면서 법상종사상과 더불어 화엄종사상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화엄종이 의상과 그의 많은 후계자들에 의한 저술활동과 화엄 10찰의 건립활동 등 그 세력을 크게 확대하여 당시 불교계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전국적으로 여러 사찰에 퍼지게 되어 그 사찰을 '의상화엄전교 10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의상의 화엄 10찰 가운데 호남 지역의 '지리산 화엄사'와 모악산 자락에 자리 잡았던 귀신사는 신라중대의 화엄도량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978년에 발견된 "신라 화엄경 사경"에 의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화엄사의 창건조사로 전해지는 연기는 경덕왕대의 실존인물이라는 점과 그의 화엄경 사경(80권본)을 발원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 화엄경 사경의 발문에 따르면, 황룡사의 승려 연기가 경덕왕 13년(754) 8월 1일에 화엄경 사경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6개월 14일 만인 그 이듬해 2월 14일(부처님 열반일 전일)에

완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경의 발문 끝에는 사경 조성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연기는 화엄경 사경을 왜 조성하였을까. 그가 사경을 조성한 이유는 첫째 은혜를 주신 아버님의 원을 위한 것이며, 둘째는 일체의 중생을 모두 성불케 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화엄경 사경 조성에 관여한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거의 호남 지방 출신이다. 이들은 사경의 일을 직접 담당한 기술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화엄사는 화엄경 사경, 석경의 조성사업을 통해 화엄불국세계(華嚴佛國世界)를 이루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며 또 포괄된 하나하나에 제 가끔의 개성을 갖게 하는 원용 무애한 경지인 화엄의 세계를 이상으로 한 화엄(華嚴)의 대도량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장흥 보림사를 창건한 원표는 8세기 중엽 전남지방의 대표적인 화엄승려의 한 사람이었다. 원표는 천보년간(天寶年間, 742~755)에 당에 유학했으며 서역의 성지를 순례하기도 하였다. 그는 경덕왕 14년(755)에 귀국하여 경덕왕의 정치에 법력으로 협력하였다고 한다. 원표대덕이 머물렀던 보림사에는 경덕왕 18년(759) 왕의 특명으로 장생표주(長生標柱)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은 보림사에 대한 왕실의 면세면역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징표로 여겨진다. 보림사에 대한 면제·면세의 특권은 헌강왕 10년(884)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장흥 보림사에 이어 9세기에 이르러 장흥의 天冠寺도 화엄종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천관사는 通靈(혹은 靈通)和尚이 新羅 哀莊王代(800-808년)에 天冠山의 北岬에 創建한 寺刹이다. 일찍이 通靈和尚의 꿈에 北岬이 땅에서 솟아 나오니 가지고 있던 錫杖이 꽃혔던 곳이라 짐작되는 곳의 덩굴을 베어 내고 절을 지어 天冠寺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天冠寺가 있는 天冠山을 支提山이라고도 한다. 그런데「華嚴經」에 이르기를 “菩薩이 머물렀던 곳을 支提山이라고 하고, 현재 菩薩이 있는 곳을 天冠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天冠寺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天冠菩薩의 眞身常主處로 여겨졌다는 점과 華嚴經 思想의 분위기에서 창건된 寺刹로 이해된다.

天冠寺의 華嚴的인 寺刹精神은 新羅 下代인 神武王代(839년)의 洪震大師에게 繼承되어졌다. 洪震大師는 神武王(祐徵)과 무척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王位에 오르기 전의 祐徵(뒤에 神武王이 됨)은 그의 父 均貞이 興德王의 死後에 벌어진 왕위계승쟁탈전에 참여하여 패배하게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淸海鎮(지금의 莞島)의 張保臯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祐徵은 자신의 不運한 시기에 淸海鎮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天冠寺의 洪震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祐徵과 洪震은 天冠寺에서 밤낮으로 정

성껏 禮를 하여 華嚴神衆을 감동시켜 그 부름에 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洪震으로 대표되는 天冠寺의 寺院勢力이 祐徵의 神武王으로의 卽位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지 않았나 여겨진다. 天冠寺의 사원세력이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과 연결되어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원의 위세를 크게 떨치기도 하였을 것이나, 곧 이어 행해진 청해진의 군진세력의 해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天冠寺에서는 9~10世紀 中葉에 製作된 것으로 보이는 天冠寺石燈(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이 있어 당시의 天冠寺의 盛勢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 신라하대 선종산문의 성립

신라 중대의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체제가 흔들리면서 지방에서 대두한 호족은 낙향 귀족출신의 호족, 토착호족, 해상의 군진세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지방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호족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신라하대에 지방호족이 등장하게 된 것은 왕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정치가 왕위계승 분쟁으로 혼미를 거듭하면서 지방세력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그 지방의 백성들을 독자적으로 지배했다.

신라하대에는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불교계 또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다. 곧 선종(禪宗)의 전래가 그것이다. 신라중대에는 교리를 위주한 교학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다. 이 시기의 불교학은 화엄학과 유식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8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관념적인 면에 흐르고 말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종이 유입되어 전개되었던 것이다.

신라에 본격적으로 선사상이 전개된 것은 9세기 전반부터였다. 서당지장(西堂智藏)의 심인(心印)을 전수한 도의(道義)가 821년에 귀국했는데 이는 선종의 신라 전래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된다. 교종으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한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하지만, 도의보다 5년 뒤인 826년에 귀국한 홍척(洪陟)은 지리산에 실상사를 창건하고 흥덕왕의 후원을 얻어 선풍(禪風)을 진작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이후 선사상은 신라사회에 급격하게 전파되어 9세기말 10세기 초반경에는 화엄종을 능가할 만큼 그 세력이 팽창되기에 이르렀다.

남도 지방은 선종의 수용과 교세확장이 가장 앞선 지역으로 선종의 3개 산문이 개창되었던 곳이다. 신라 말 이 지역에서 선종사원으로 이름을 떨친 사

찰은 장흥 보림사, 강진 무위사, 화순 쌍봉사, 곡성 태안사, 광양 옥룡사, 구례 연곡사로 대표된다. 이 가운데 보림사와 무위사는 가지산문, 태안사와 옥룡사는 동리산문, 쌍봉사는 사자산문의 근본도량이었다. 선종 9산문 가운데 3개 산문의 중심도량이 이 지역에 거점을 마련했던 점은 선종의 요람지였던 것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지산문은 장흥 보림사의 보조선사 체징에 의해 개창되어졌다. 체징은 도의-염거의 선풍을 계승하였는데, 현안왕 3년(859) 왕의 요청으로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 주석하고 있다가 경문왕 원년(861)에 더 확장하여 가지산문을 융성하게 하였다. 가지산문의 후원세력은 현안왕, 무주 장사현 부수 김언경, 망수택, 이남택의 금입택(金入宅: 신라의 왕경 경주에 있는 진골귀족의 호화주택)이었다. 체징의 문하에는 영혜, 청환, 의차 등 8백여 인이 있었으며 후에 당에 가서 운거도옹의 조동종을 전해 온 형미(864-917)도 그의 사법제자였다. 형미는 당에서 귀국할 때 서남해상의 제해권을 장악한 왕건의 도움에 힘입어 귀국하여 그에게 연결되어졌다. 왕건은 무위사에 주석하고 있던 형미를 데리고 태봉의 수도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형미는 왕건이 즉위하기 직전 917년 궁예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비문의 결락으로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친왕건적인 형미가 궁예의 무도함을 비난한 것이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싶다. 형미의 피살은 선종산문과 지방호족들에게는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그의 비문에 “개울과 연못이 갑자기 마르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으며, 도인과 속인이 모두 울음을 삼켰고 사람과 하늘이 그 빛을 변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은 결국 궁예로 하여금 민심을 크게 잃게 하였으며 반대로 왕건의 추대를 재촉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동리산문은 개산조 혜철(785-861)이 현덕왕 6년(814) 입당하여 서당지장으로 부터 그 심인을 얻고 문성왕 원년(839)에 귀국하여 개창하였다. 혜철의 문하에는 口여(口如)와 그의 제자인 윤다(允多, 864-945)가 계속 곡성 태안사에 주석하였다. 혜철의 제자로 동리산문의 방계인 도선(827-898)과 그의 제자인 경보(869-947)는 광양의 옥룡사에 주석하였다. 특히 경보는 후백제의 견훤에게 연결되어졌다. 견훤이 경보가 중국에서 귀국하자 전주에 머무르게 하면서 “우리 스승을 만나기는 비록 늦었으나 제자되는 것을 어찌 늦추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연결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동리산문의 선사상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졌는데, 하나는 유식사상의 포용이요, 다른 하나는 풍수지리사상의 수용이었다.

사자산문은 도윤(798-868)이 남전보원의 선법을 전하여 문성왕 9년(847)에

귀국하여 화순 쌍봉사에서 선풍을 드날림으로써 비롯되어졌다. 쌍봉사에서 사자산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의 제자 절중(折中, 826-900)은 강원도 영월 사자산에 옮겨가 흥령선원에 주석하면서 사자산문을 개창하였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이 선종 발흥의 요람지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주로 남중국에 들어가서 유학하던 선승들이 무주일대의 서남해안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903년 왕건이 나주를 정벌함으로써 서남해상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자, 선승들은 왕건의 도움 없이는 귀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승들은 왕건세력의 보호를 받으며 서남해안으로 귀국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왕건과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다. 왕건은 선승들이 호족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는 교화력이 적지 않음을 간파하였던 것 같다. 왕건은 선종세력과 연결된 호족세력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고려로의 통일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남지역은 일찍이 선종 발흥의 요람지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주로 남중국에 들어가서 유학하던 선승들이 무주일대의 남해안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선승들은 해상 군진세력인 장보고의 선편에 몸을 싣고 신라에 귀국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820년대 후반에서 840년대 중반까지는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서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선승들과 장보고와 연결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장보고는 문성왕대 염장에 의해 피살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발견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종선은 주로 강서·호남지방에서 성행하여 중앙이 아닌 지방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어 지방분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중국 남종선을 이은 신라의 초기 선종산문도 지방사회, 특히 호남지방에 일찍 뿌리를 내리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질적 지배자인 호족의 후원아래 뿌리를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왕명을 받아 건립된 선승들의 탑비에는 호족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중앙의 왕실과 연관된 면만 기록되어 있다. 초기 선종산문의 단월세력으로 실상산문은 흥덕왕과 선강태자, 동리산문은 문성왕, 가지산문은 헌안왕과 장사현 부수 김언경 그리고 진골귀족인 망수택·이남택의 금입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선종산문은 지방의 호족세력과 중앙의 왕실세력, 즉 쌍방과 결연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건이 903년에 나주를 공략하여 서남해상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자, 선승들은 왕건의 도움 없이는 귀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승들은 왕건세력의 보호를 받으며 서남해안으로 귀국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왕건과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다. 왕건은 선승들이 호족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

게 미치는 교화력이 적지 않음을 간파하였던 것 같다. 왕건은 선종세력과 연결된 호족세력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고려로의 통일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선종산문(禪宗山門)은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동리산문은 872년(경문왕 12)에 세워진 동리산의 혜철대사비문에 의하면, 당시 태안사에는 2,939석 4두 2승 5합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으며, 전답이 494결 39부였고, 좌지가 3결, 하원대가 4결 72부, 시지가 143결, 염분이 43결이며, 그밖에 노가 10인, 비가 13인, 복전이 40인이었다 한다.

가지산문은 현안왕대에 그 후원자인 김언경이 사재로 철 2,500근을 내어 노사나불 1구를 주조하였고, 망수택·이남택으로부터 금 160푼과 조 2,000곡을 공출하여 그것을 장식하였다. 또 경문왕대에는 보림사 쌍탑을 김언경이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선종산문은 단월세력의 후원아래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장원을 형성하여 사원경제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와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장하여 교종의 논리를 초월하여 불성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가졌다. 선종은 교종의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면서 불성(佛性, 부처의 성품)은 중생의 누구에게나 내재된 것이라 함으로써 자기 마음 속의 불성을 깨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선승들은 경전에 의하지 않고 밖으로부터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림에 은거하여 좌선을 행했다. 외식제연(外息諸緣, 밖으로부터의 모든 인연을 끊고) 회광반조(回光返照, 내재적 불성을 발견하려는 것)의 선종사상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거추장스러운 간섭을 벗어나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는 지방호족의 취향에 어울리게 되었다.

선승들은 대개 육두품 출신으로 진성여왕 이전에는 왕실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으나 점차 지방호족과 연결되어가는 추세였다. 선종사찰을 중심으로 거대한 장원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경영에 지방호족이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후삼국시대의 선종 승려들은 대부분 왕건과 인연을 맺고 있었으며 왕건에게 정치이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방호족을 연결시키는데 매개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0세기 초에 이르면 선종은 화엄종을 능가해서 크게 확대되어 갔다. 9세기 중반 이후 국사(國師)에 책봉된 승려는 모두 선종승려였다. 이와 같이 선종이 크게 확대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불교의 내적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불교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지방호족

뿐만 아니라 왕실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불교 자체의 요인은 중국불교의 영향과 신라 화엄종의 문제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회창 연간(會昌 年間, 814~846)에 일어난 폐불사건(廢佛事件)에도 중국 선종은 타격이 적었는데 이것은 신라 입당승(入唐僧)들이 중국에서 선종에 경도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신라 불교계내의 자체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이론에 치우치고 관념적인 경향에 흐르던 신라하대 화엄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선종이 유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신라 하대의 선종승려들은 대개 교종 특히 화엄종의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한계를 비판했지만 그러면서도 화엄학을 겸수했던 선승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선종에 귀의하기 이전에 화엄학을 익혔던 선승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화엄학과 선사상이 중관철학(中觀哲學) 계통으로서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선종 수용 초기보다 신라말에 이르러서 화엄학을 겸학한 선종 승려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선종과 함께 교종이 병립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선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그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교종 특히 화엄종은 많은 충격을 받고 어느 정도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존립기반 자체가 뒤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라 하대에는 교종은 조용하기만 하고 선종만이 융성했다는 견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 하대의 불교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너무 선종에 치우친 것으로 보여진다. 선사상의 전래 및 수용은 기존의 불교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지만, 이 시기의 두드러진 현상은 화엄사상과 선사상이 공존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또 상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종래의 연구는 화엄종은 귀족과 연결되고, 선종은 지방의 호족세력과 손잡았다는 도식적인 이해를 하였다. 선종 사찰이 각 지방에 건립되어 그 지방의 호족들의 지원을 받았던 경우가 상당히 보인다. 그러나 왕실과 연결되거나 그 후원을 받았던 경우도 적지않게 발견되므로, 지나친 도식적인 이해는 당시 불교계의 실상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당시의 불교계의 흐름은 기존 교종의 한계, 즉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을 벗어나 보다 실천적인· 혁신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선종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이에 자극받아 화엄종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 시기의 불교계는 선종과 교종의 세력관계에는 약간의 우열과 갈등도 있었지만, 선종과 화엄종이 상호 공존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대(唐代)의 선종사원(禪宗寺院)은 백장회해(百丈懷海)의 『禪苑清規(선원청규)』에서 “선원(禪院)이 율원(律院)에서 독립하여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법당(法堂)만을 건립하였다”고 하므로 선원(禪院)에서는 불상(佛像)을 봉안(奉安)한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주지(住持)가 상당법문(上堂法門)할 수 있는 법당(法堂)만을 세운 것이다. 선원(禪院)의 주지(住持)가 교화주(教化主)로서 즉 당세(當世)의 살아있는 부처로서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신라 선종사찰에서는 불전(佛殿)을 세우고 주존불(主尊佛)로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였는데, 이는 화엄교학(華嚴敎學)을 기초로 하여 발전된 신라 선종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말려초 시기의 선종산문은 한국 선종의 원류로서 고려후기 보조지눌의 사상 형성에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선종의 유행으로 지방불교, 산중불교, 수행불교, 자급자족의 장원경제로의 불교계 내부의 변화와 선종미술(비로자나철불, 부도, 탑비)의 융성과 깍다(喫茶)의 다풍(茶風)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연구과제이다.

4) 고려후기의 불교결사

무신의 난으로 고려전기의 문벌귀족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불교계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무신의 난 직후 사원은 문신들의 피난처가 되는 한편, 왕실·문벌귀족과 결탁하여 무인정권에 반항하여 여러 차례의 무력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신의 난 이후 불교계는 이전의 불교에 대해 반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신의 난 이후 불교계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지방에서의 불교개혁적인 신앙결사의 유행이었다. 이것은 개경중심의 귀족적인 체제유지적인 타락한 불교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후기의 대표적인 불교개혁적인 신앙결사운동은 조계종의 수선결사와 천태종의 백련결사가 대표적인 존재였다. 수선사는 순천 송광사를 중심도량으로 한 정혜결사였으며, 백련사는 강진 만덕사를 근본도량으로 한 법화결사였다. 수선사와 백련사는 한반도의 남부지방인 승주와 강진에서 당시의 세속적인 불교를 질타하면서 불자의 본래적인 면목을 되찾으려는 불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개혁운동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성격의 신앙결사를 조직하여 쌍벽을 이루었던 것이다.

5) 조선전기 사찰의 통폐합과 불사활동

조선왕조가 유학을 정교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게 되자, 사원경제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찰의 통폐합 등 불교종단을 정리하게 되었다. 창평의 서봉사를 교종의 수사찰로, 구례의 화엄사를 선종의 수사찰로 하는 선교양종으로 양분하게 되었다. 불교는 집권층으로 부터는 배척을 당했지만, 서민들의 현실문제와 내세를 추구하는 기복신앙의 귀의처로 종교적 기능을 여전히 그 기능을 다하였다. 조선전기에도 송광사, 도갑사, 무위사, 쌍봉사의 중창 등 사찰의 중건 불사활동이 이루어졌다.

6) 조선후기 불교경향과 청허·부휴계 승려들의 활동

ㄱ) 조선 후기 불교의 경향

양난 이후 많은 사찰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송광사, 화엄사, 등 대대적인 重創佛事를 이루어졌고, 계율과 선정, 지혜, 염불을 위주로 하는 三學 修行의 전통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또한 송광사, 선암사, 대흥사, 화엄사, 금산지 등의 사찰에서 華嚴經 講會가 盛行하였다. 강회에 필요한 佛書가 징광사, 대광사, 안심사 등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승려들과 유학자 간에 儒佛交流가 밀접하여 성리학의 관심사가 불교사상에도 그 영향을 미치었다.

조선 후기 불교 승려들은 대체로 서산 휴정과 부휴 선수 양대 계파로 나뉘어 그 법맥이 계승되었다. 이 시기의 불교사상적 특징은 대립과 논쟁을 떠난 융화회통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대립적이고 논쟁적인 모든 교설을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지양시켜 교외별전(敎外別傳)의 활구선문(活句禪門)에 귀일시켰던 것이다.

전통강원의 교과목 형성의 역사적 과정도 선학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되어 왔다. 교과목의 정립에 이어 이것들에 대한 사기(私記)가 저술되어 교과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학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화엄경 강회가 선암사·송광사·대둔사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열려 교학승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불교학의 아카데미가 형성되었다.

ㄴ) 청허문파와 그의 법맥

청허휴정 문하에 5대 문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 편양언기계와 소요태능계가 사자상승하여 대체로 전남 서남부 사찰에 주석하였다. 대둔사에 청허휴정의 의발이 옮겨지면서 대둔사는 조선불교의 종원(宗院)이 되기에 이르렀다. 청허의 문도들 가운데 편양언기(鞭羊彦機) ·소요태능(逍遙太能)계가 주축이 되어 화엄강회를 오랫동안 개최하여 13대종사(大宗師)·13대강사(大講師)를 배출함으로써 조선후기 강회불교의 요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둔

사의 초의와 선운사의 백파와의 선논쟁은 조선후기 불교를 자못 활기있게 만들었다.

조선후기 해남 대둔사의 강회불교를 이끈 13명의 대종사와 13명의 대강사는 모두 서산에게서 나왔고, 화엄경 강회의 대규모 법회를 연이어 열었다. “조음(潮音)은 두륜산을 흔들고 구름은 침계루(枕溪樓)에 걸렸다. 그래서 온 나라의 치림(緇林)이 대둔사로 모여와 모두가 종원으로 받든다”고 하였다. 13 대종사 중 연담(蓮潭)은 가장 끝에 있으나 끝이 아니고 대종사 중의 꽃이었다. 13 대강사는 조선후기 해남 대둔사의 강회를 이끈 13명의 승려이다.

ㄷ) 부휴문파와 그의 법맥

조선후기에 들어와 조계산에는 교학이 융성하여 선암사와 송광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름을 날린 강백과 선사들이 배출되어 선교의 요람으로 불리워졌다.

선암사에서는 청허휴정-소요태능의 법맥을 이은 인조대의 침굉 현변(枕肱懸辯, 1616~1684)으로부터 상월 새봉(霜月靄筭, 1687~1767), 눌암 식활(訥庵識活, 1752~1830), 해봉 전령(海鵬展翎, ?~1826), 경운 원기(擎雲元奇, 1852~1936) 등 대강백이 강회를 이끌었다. 특히 영조 30년(1754) 선암사에서 열렸던 상월 새봉의 화엄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1200여명의 승려가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근세에 들어서는 함명 태선(涵溟太先, 1824~1902)-경봉 익운(景鵬益運, 1836~1915)-경운 원기(擎雲元奇)-금봉 기림(錦峰基林, 1869~1916)으로 이어지는 강맥이 전수되었다.

송광사에서는 왜란 이후 중창주인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계의 벽암 각성(碧巖覺性)-취미 수초(翠微守初)-백암 성총(栢庵性聰)-무용 수연(無用秀演)-영해 약단(影海若坦)-풍암 세찰(楓巖世察)-묵암 최눌(默庵最訥)로 이어지는 법맥이 계승되었는데, 이들이 강회를 열어 교학을 크게 융성하게 하였다.

한편, 승려들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원류를 기록한 종파도(宗派圖)를 채영(采永)이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은 인도·중국 그리고 고구려·백제·신라·고려의 조사 및 조계산 16조사 등 정전(正傳)과 산성(散聖)을 편집수록하여 역대조사의 원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족보형태의 사승기(師承記)는 선종에서 이심전심의 인가전법(印可傳法)을 중시함으로써 중요시 하였다. 이 책은 조선후기의 유교적 족보사회에서 정통성의 확립을 위한 전승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시대상황에 부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왜란으로 불에 타버린 건물이 겨우 중건되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화재로 인

해 사찰은 잿더미로 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19세기에 조계산 지역의 사찰에는 잇따른 중창불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창불사와 관련되어 사찰의 장엄수식과 불교신앙상의 변화로 많은 불전과 불화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다수 제작된 불전과 불화들을 통해서 불교신앙의 변화됨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찰내에는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 민간신앙적인 성격의 전각이 건립되었고, 이와 함께 기복과 영가천도를 위한 명부전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각 전각에 봉안되는 불화도 많이 제작되었음은 물론이다. 왜란 이후에는 전란으로 소실된 사찰이 새롭게 중건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찰에 명부전이 건립됨에 따라 명부전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추선불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읊는 고성염불의 풍조가 널리 성행하면서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대중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아미타정토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지장보살과 시왕에 대한 신앙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 경종 3년(1723)에 편찬된 불교의례를 집대성한 『범음집(梵音集)』이 주로 영혼천도의례(靈魂薦度儀禮)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당시에 망자천도의례가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짐작케 해준다.

ㄹ) 사원경제의 침탈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사원경제의 침탈이 심하여 寺位田의 상실, 義僧軍의 동원, 紙役 및 雜役의 부과, 屬寺의 폐해로 인해 사찰은 폐사지가 되거나, 空寺化 될 정도로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승려들은 사찰의 願堂化, 僧役을 면제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 僧契를 조직하는 등 補寺活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갔다.

7) 일제시기 本山體制와 전통불교의 수호

대사찰은 조선사찰령에 의해 사법을 조선총독부에 인가받게 되어 백양사, 선암사, 송광사, 대흥사, 화엄사와 완주의 위봉사, 금산의 보석사가 본사가 되어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 되어 일제의 식민지불교정책에 순응하기도 하고, 맞서 대항하며 전통불교를 수호하고 근대적인 불교를 지향하였다.

8) 해방 후 僧團의 紛糾와 淨化運動

조국이 광복이 되자, 불교계에도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불교 본래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자정운동이 일어났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처측과 수행자의 본분을 추구하는 비구측과 현실적 이해문제를 둘러싸고 각축이 벌어지는 승단의

분규와 정풍운동이 일어났다. 종단의 내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송사에 휘말려 삼보정재가 유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단이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양분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9) 本山體制와 叢林佛敎

1970년 1월 15일 태고종이 불교종단으로 발족하게 되면서 불교계는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양분되었다. 전남에서도 일제시기의 5본산이 대한불교조계종의 4본사(백양사·화엄사·송광사·대흥사)와 한국불교태고종의 선암사로 나뉘게 된 것이다. 불교승단 분규로 인해 호남 지역에서는 불교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나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1969년 송광사가 조계총림 송광사로, 1995년 백양사가 고불총림 백양사로 총림사찰로 승격되어 종합불교수행도량으로서 사격을 갖추게 되었고, 화엄사, 대흥사, 금산사, 선운사는 교구본사로써 지역불교를 이끌어갔다. 태고종에서는 태고총림 선암사가 분규의 와중에서도 천년고찰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나머지 말

제3강좌 :

**‘NO 재팬’ 으로 들여다본
한민족의 정기와 일제 잔재**

김 순 흥
(광주대 교수)

NO 재팬으로 들여다본 한민족의 정기와 일제 잔재

김 순 흥(광주대 교수)

1. 애국심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NO JAPAN !!!

2019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명제다. 일제강정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관련 문제로 아베가 주요 공산품 원료의 한국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이후, 한국도 이에 질세라 일본에 대한 보복을 시작하였다. 일제 안사기, 일본 안가기.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한쪽에서는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적당히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예속된 구조를 털고 자립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실렸다. 3.1혁명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잊지않고 되새기는 분위기도 한 몫을 했다.

왜 이제야?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어느 한 해도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내지 않은 적이 없다. 식민지 역사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자존심조차 잃어버린 무개념. 예전에는 한국의 기술이 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웅색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면서도 아직도 '일제'라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무개념 등이 어우러져 가져온 결과였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일본'이 아닌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속에 들어와 박혀있는데도 그것이 '일본것'인지조차 모르는 무지. 생각도 해보지 않는 안일함.

애국심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면 일본이 그동안 우리에게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넋을 빼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것이다. 일제의 강점과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각종 만행에 대해 배상은 커녕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간을 빼주고 쓸개를 내줘온 우리들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기 운동에 후원을 하는 유니클로, 헬로키티, 아사히 맥주, 마일드세븐, 시세이도 등등에 돈

을 갖다 바치는 무개념. 우리 골목 상권을 통째로 일본계 편의점 훼미리마트(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에 내주고도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개념. 불매운동에 동조해서 이들이 일제 맥주를 안 판다고 하니 '이빠서' 일본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앞뒤가 안 맞는 무개념.

- 지 돈내고 죽음의 땅에 놀러가는 무개념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갑자기 싸진 일본 맥주들과 일본 관광비용. 왜 싸졌을까? 생각 한번도 해보지 않고 덥석 무는 무개념. 깨어있는 나라들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수입을 철저히 금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땅에 가는 것을 주저하니, 팔 데가 없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값이 싸졌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싸다고 마시고, 싸다고 놀러가는 무개념. 다른 것이야 그냥 돈만 손해보면 그만이지만, 방사능오염은 발암과 기형아 등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어른들이 가는 것도 모라라서, 미래에 아이를 낳아야 할 청소년 자녀들까지 죽음의 땅 일본에 단체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무개념. 사고는 일본에서 나고 오염은 한국사람이 되는 어리석음.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수입해 광고로 도배해가면서 뿌리는 막된 기업과 그에 넘어가는 무개념. 버는 족족 일본으로 보내는 롯데와 농심같은 회사들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무개념. 제일교포가 세운 롯데, 피는 우리의 피를 받았다고 하지만, 한국말도 모르는 소유주와 2차대전 전범이 함께 어우러진 기업. 그저 널부러진 일본의 기업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 핏줄이라서 한국기업인 줄 착각하는 무개념. 핏줄에 속아 피를 빨리고 있다.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다. 자존심도 없다. 내가 아베라도 알보았을 것이다. 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라고.

이제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본의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하고,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 이 나라를 지켜온 의병의 정신으로, 일제강점기를 버텨온 독립군 정신으로. 아베가, 일본이, 다시는 알보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임진년의 의병의 자식이 을미년의 의병이 되듯이, 을미년의 의병의 자식은 대한민국 101년 기해년에 다시 의병으로 부활한다.

2. 국가폭력으로 남은 일제의 잔재

어떤 시인이 '잔인한 달'이라고 불렀던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도 갔다. 72주년이 되는 제주 4.3학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여섯 돌을 맞은 세월호, 그리고 5.18. 10월이 오면 제주 4.3에 물려나오는 여순 학살사건도 72살을 먹는다. 모두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다. 어떤 것은 낫내놓고, 어떤 것은 아닌 척 위장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해방된 뒤 이 땅에서 일어난 국가폭력들은 일제가 저지른 것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게, 그리고 더 많은 목숨들을 희생시켰다. 6.25 한국전쟁과 그 전후에 일어난 보도연맹사건, 거창, 함평, 대전, 아산, 등등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수많은 민간인 학살현장에서, 수사도 재판도 없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죽였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이같이 잔학하고 무도한 일은 없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회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지만, 무차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일제가 남겨놓고 간 흔적이 국가폭력이라는 형태로 아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잔학성과 오야붕/꼬붕 식 맹종의 문화

해방 후 저질러진, 최근까지도 저질러지고 있는 국가폭력에서 일제의 흔적을 본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잔학성이다. 우리 역사에도 목을 베는 참수형, 목을 매는 교형,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형 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가해진 형벌이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만들어놓은 귀무덤, 코무덤, 일제가 중국 난징에서 저지른 30만명의 민간인 학살,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독립투사들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에게도 저질렀던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잔학한 행위가 그들이 떠난 뒤에도 이땅에서 반복되었다. 일제가 아닌 한국인의 손으로. 일본군 출신과 일본경찰, 그 꼬나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 군대와 경찰은 그들이 일제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동포들에게 자행해왔다.

제주,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지어 베트남에 가서도 국가라는 이름으로 군인과 경찰들이 수많은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5월 광주에는 기관총이나 헬기사격을 가한 것도 모자라 폭격도 준비했다고 한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한 것은 총칼을 사용하지 않아 눈에 쉬 띄지도 않는다.

둘째, 무조건 복종의 오야붕/꼬붕 문화가 이어졌다.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고 거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일제의 문화에 길들여진 군경들은 물론 시민들도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받아들였다. 잘못된 것이다.

제주 4.3에는 예비검속을 해서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했던 문형순 성산경찰서장이 있었고, 5.18에도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을 비롯한 수많은 의로운 경찰들이 있었다. 1948년

여수 14연대에는 제주를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에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2,000명의 장정들이 있었으나 모두 반란군으로 몰려 아직도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부당한 명령임에도 거부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베를린장벽을 넘던 민간인들을 사살한 동독의 군인들은 통일 후 처벌받았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따른 죄'로. 일제의 오야붕, 꼬붕 문화는 정당부당을 떠나 무조건 따르는 문화다. 오야붕이 시키면 꼬붕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문화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는 형태로 잘못 전해져 내려온 까닭에 일제를 겪지 않은 세대의 군경들도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길들여지고, 잘못된 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게끔 되었다.

말이나 관습, 문화 등 생활 속에 남은 그 어떤 일제의 찌꺼기보다도 더 무서운 찌꺼기가 우리의 정서 속에 남은 잔악한 폭력성과 무조건 따르는 맹종성이다. 이러한 일제의 찌꺼기가 우리 현대사를 망쳐왔다.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아픔이다. 하루빨리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친일잔재 청산!!! 국가폭력 청산 !!!

3. 일본의 몰락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본은 20년 내에 반드시 몰락한다" 세계적인 투자가로 유명한 짐 로저스가 엇그제 한 말이다.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일찌감치 말하고 있었는데 짐 로저스가 말하니 이제야 떠들어댄다.

일본의 근대화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 근대 국가 수립과 제국주의의 원동력이 된 메이지(明治) 유신의 개막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른바 검은 배(黑船) 네 척을 끌고 에도만 입구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일본을 지배해 온 에도 막부는 미국의 위세에 굴복해 불평 등 조약을 맺어야 했다. 비록 타의에 의해, 무력으로 이루어진 개국이었지만, 250년에 걸친 일본의 쇠국 정책은 종말을 고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서구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근대화되었다. 아시의 선진(?) 강국으로 태평양전쟁을 치를 정도로 세계사에 흔적도 남겼다. 그러나 거기까지.

2차대전으로 폭망한 일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되살아나기는 했지만, 전쟁에 대해 되돌아보지도 않고, 역사를 되짚어보지도 않고, 그 전 상태에서 머물렀다. 150여년전, 국가의 외형적 체제와 물질적 근대화는 이뤘지만, 1000년에 이르는 사무라이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남아 일본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산업

변화과정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로 중상층에 해당하는 기술자나 전문가의 머리수가 늘어나서 하류층에서 신분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오야붕 꼬붕에 젖어있는 일본사회는 아직도 신분변화가 쉽지 않다. 문물은 많이 변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의 의식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신분사회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폐쇄사회는 신분이동이 용납되지 않고, 그것이 당연시되다보니 가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능력에 상관없이 지배계급은 대를 물려 정치를 하고,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도 높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가업을 이어받아 우동가게(?)를 이어가야 하는 폐쇄사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본 사회. 정체된 사회다.

전통을 사랑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모방의 천재라고 불렸다. 매뉴얼사회라고도 부른다. 얼핏 좋은 말로 들리는데, 매뉴얼이 없을 때는?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사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후쿠시마 원전사태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이 준비된 매뉴얼이 없을 때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다. 모방은 누군가 먼저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결코, 먼저 앞서서 나가지 못한다.

기술의 변화는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이나 의식을 바꾸게 된다. 인류역사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농경사회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있었다라든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더뎠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의 사회변화는 농경사회의 변화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이 정치형태와 산업형태에서는 일찌감치 변화를 겪었지만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가치관(오야붕 꼬붕 정신)은 변하지 않고 일본사회의 밑바탕에 깔려있다(일부 개인 시민들도 있지만 이들이 주류를 이루지 못한다). 정부(오야붕)가 가만히 있으라 하면,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회가 일본이다. 후쿠시마원전사태 때, 잠시 세계 언론이 질서를 지키는(혼란이 없는) 일본의 시민정신을 찬양했다. 일본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민주시민정신이 아니라, '오야붕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할복이라도 하는 꼬붕문화'였을 뿐이다.

한때 아시아 최고였고, 한국을 식민지로 두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광에 바탕을 둔 오만일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체제나 정치체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는커녕 3차 산업혁명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안 통하는 곳이 많아 언제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선진국(?), 아직도 팩스로 코로나19상황을 보고하는 행정체계는 지금의 일본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백인과 인디언의 전쟁. 선과 악의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백인이 선인이었다 할지라도 인디언은 멸종되었을 것이다. 대포와 총을 가진 철기문화와 돌칼과

화살로 무장한 석기문화가 부딪혔으니 뒤진 문화가 무너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미국과 쌍벽을 이루던 초강대국 소련의 몰락. 자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통제사회의 말로였다. 짐 로저스가 아니라도 사회학자의 시각에서는 일찌감치 일본의 몰락이 예견되었다.

일본 정신(?) : 천년에 이르는 사무라이 지배 역사에서 언제 누구에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두루뭉술한 표현(흔네)이 국민성이 된 나라. 내놓고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못하고, 누구를 내놓고 지지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국민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번도 저항의 역사를 가져보지 못한 나라다.

한국은? 선비정신과 저항의 전통. 한국의 정신이나 호남의 정신을 유교논쟁이나 차문화, 풍류 등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으나, 진정한 한국의 정신은 저항의 정신이고, 필요하면 일어나는 의병의 정신이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지부쑤상소, 수많은 의병들의 저항과 독립투쟁, 4.19와 5.18, 6월 항쟁, 촛불시위 등,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난극복이 취미인 나라이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사무라이 문화와 달리 우리는 서로 어울려 사는 수많은 미풍양속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문화. 유교적 가치에 발이 묶여 잠시 어지러운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했지만 세계 과학사에서도 앞서갔던 한국이다. 문화강국의 역사도 가졌다. 풍류도 시대에 맞는 문화, 시대에 맞는 풍류가 있다. 자연풍광밖에 없던 시절에는 자연풍광을 노래하고 즐기는 것이 풍류였으나, 새로운 문물이 많이 생겨난 지금, 생활방식이 바뀐 지금은 야구, 축구, 컴퓨터 게임 등이 새 시대의 풍류가 되어 있다. 진작부터 자연풍광밖에 없는 관광은 끝나고, 새 풍류가 있는 곳에 관광객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의 전통가치는? 저항정신과 공동체의식, 창조정신이 진정한 한국의 가치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화와 전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안주하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창조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그 결과는? 일본의 몰락을 뒤따라갈 것이다.

4. 변화와 지체(遲滯), 적응¹⁴⁾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도구나 시설은 물론이고,

14) 1990, 광주일보 월요광장

도덕이나 가치관, 규범, 놀이방식, 생활양식 따위 모든 것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 문화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문화는 사회의 형태와 수준에 따라 바뀌어 간다. 어떤 사회에서는 필요했고, 문제가 없던 문화라 할지라도 사회가 바뀌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다른 것과 조화가 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사냥에 쓰던 창이나 활이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이제는 시묘살이를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이제는 모두 바뀌고 없어진 문화다.

20세기, 특히 그 후반에 들어서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수천 년을 내려온 전통 농경사회로부터 지구 궤도 밖에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로 산업기술이 발전된 사회로 바뀌었다.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난 이후 사람이 사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어 왔다. 수렵과 채취가 주 생산수단이던 사회로부터 원예사회, 농경사회를 거쳐 공업사회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도 그 형태가 바뀌어 왔다. 생활양식과 가치관, 도덕, 법률, 각종 제도, 활동범위 따위 모든 것이 바뀌어 왔다.

지구상의 온 인류가 겪어 온 이같은 사회적 변화가 유독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와 북미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 동안에 겪었던 변화를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경험하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서구의 변화 템포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고, 수백 년에 걸친 변화 기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의 시간도 충분히 주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은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세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계층에 따라 변화에 대한 노출과 수용 정도가 다르다. 나이든 세대가 농경사회로부터 첨단 산업기술사회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모두 겪고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는 나면서부터 공업사회의 혜택을 받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어떤 지역과 계층에서는 최첨단의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직도 농경사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회형태에서 유래한 생활양식이 뒤섞여 있다. 어떤 부분은 첨단 산업사회에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농경사회의 생활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의 지체현상(遲滯現象)이다.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마치 물체의 한 부분에만 열을 가하고 급히 식히면 금이 가고 깨지듯이 사회도 한 부분의 변화에 다른 부분이 같이하지 못하면 뼈거덕거리게 된다. 변화속도가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부조화는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앞서가는 생활 환경과 거기에 따르지 못

하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는 사회적 부조화를 가져오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지체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의 한 보기로 관혼상제를 들어보자. 사람이 혼인하고 죽고 하는 일이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것이겠으나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우리의 관혼상제 문화는 주로 농경사회에서부터 지켜 오던 것이다. 어떤 집에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축하하고 준비를 돕고 즐긴다. 초상이 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여를 만들고, 음식을 장만하고, 상여 떠메면서 장례 절차를 거든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농사)을 하고 살던 농경사회에서는 따로 시간에 매여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좁은 마을 공동체에 한정되어 애경사가 그리 자주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같은 풍습이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사회 유지 방식이었다.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농경사회에서는 사회구조가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일을 거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다. 서로 품앗이를 하지 않고는 자기가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공업사회는 다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분업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생활반경도 커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의 틀에 얽매어 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생업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활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만나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농경사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분업은 어느 한 사람이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만들었다. 분업은 다른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멈춰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따라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간에 얽매이게 된다. 한편, 발달된 사회적 분업은 시설과 물품,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해준다. 이웃이나 친지의 손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제공해준다.

초상집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들러야 하고, 한 주일에도 몇 건씩 있는 결혼식도 모두 들여다보노라면 바쁜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친지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정서가 참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자기 생활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분업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풍습이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고 짐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관혼상제를 쉬운 예로 들었으나 이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문화지체로 인한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곳곳에 널려 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뀐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사회의 생활양식이 갖는 좋은 뜻과 가치는 살리되 그것의 딱딱한 형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의 형편에 맞는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전통사회의 생활양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바깥 사회와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바뀌어 가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사회나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제4강좌 :

예술로 만난 민중 신화와 사상

김 봉 준

(화가, 신화미술관장)

동학, 5.18, 촛불혁명, 그 숲처럼 민주주의 -예술로 보는 민중신화와 사상-



김 봉 준(화가, 신화미술관장)

<마당굿> 김봉준 목판화 1998년 작

‘민중신화와 사상’으로 원고 청탁을 받고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오래 살다가 보니 이런 주제까지 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부담감이고, 이런 주제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에 누군가는 풀어내야 할 숙제이기에 맞아야 할 매라면 먼저 맞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험난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단한 시대의 핵심질문, 그것은 민중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그 속에 깃든 사상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특히 남도에서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풀어내야 하는 핵심담론에 이르렀다. 오래 살다보니 나도 감당해야 하는 주제가 되어버린 민중신화와 사상은 무엇인가, 나 보고도 한마디 하고 가라 하시니 풀어보겠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잡놈이다. 그렇게 살아 왔다. 한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저 잡다한 연장만 즐비하게 갖고 다루는 장인이다. 내 공방에 오시면 알겠지만 집 지을 때 쓰는 연장들, 조각 할 적에 쓰는 연장들, 45년 붓그림 글씨 할 적에 사용하는 조선 붓쟁이 연장들, 40년 목판화 하며 쓰는 연장들, 서양화 하면서 사용하는 유화 아크릴 연장들, 포토샵

디자인과 글쓰기에 사용하는 노트북, 그리고 소통 도구로 활용해 온 스마트폰. 이게 내 연장의 전부다. 이 연장들만 보고 있노라면 고대부터 근대와 탈근대로 이어진 동아시아와 서방의 오랜 노동의 도구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혼잡한 연장의 내력을 살피면 다른 이들도 비슷할 것이다. 지금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합류한 시대이다.

민중은 신을 잃었다. 신화시대 이후 철기시대를 접어들며 왕권과 무사계급이 빼앗아간 권력에 숨죽여가며 살았다. 종교는 이 현실권력의 동반권력이거나 권력 나눔의 계약관계다. 종교는 영혼을 지배하고 왕권은 물질을 지배하였다. 해서 신화시대에 만물이 모두 영혼을 지니어서 서로 영혼이 소통하고 범신을 숭배하던 시대에서 영혼마저 독점되는 절대신 우위의 시대가 된다. 유일신은 왕권과 신권의 계약관계의 산물이다. 철기시대는 전설의 시대로 신 우위의 세계관이 관통하며 권력을 영혼과 물질로 분점하는 영혼지배의 시대가 되었다. 민중이 자신의 신을 잃게 된다. 유일신관은 범신주의 신앙세계를 평정하고 영혼을 지배하려는 전쟁의 승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이다.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말라는 것은 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숭배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태초에 인류족의 모든 신앙은 다신론이고 범신론이다. 범신주의로 시작한 인류신앙은 인류 미래에도 범신론으로 끝이 날 것이다. 민중신은 신 우위의 시대인 전설의 시대와 신을 무시하려는 민담의 시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민중신은 본래 다신 범신론이다. 종교의 시대 마지막을 지나서 오늘날 역시 민중은 자기 신을 잃고 산다. 아, 근대 이후 민중은 어떤 신관을 가질 것인가? 칸트는 세계평화를 바라는 보편적 이성의 신으로 세계의 종교가 창조될 것이라 했다. 니체는 본성을 중시하며 이성인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만든 도덕률로 미래의 질서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차라리 허무주의 입장에 서며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지금도 이어지는 서양철학의 혼란은 이성과 본성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난리가 났다. 흑인을 경찰이 폭력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트럼프는 극좌폭도로 몰아가고 시위는 미국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홍콩사태도 만만치 않다. 홍콩보안법을 중국이 만들려 하니 홍콩시민의 시위가 촉발했고 여기도 과잉진압으로 폭도로 몰아가며 탄압하는 것이 피장파장이다. 제국의 국가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주도의 도덕률이 위선적이고 시민의 자유의지는 무정부주의적이다.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반 인권적이며 폭력적이어서 어떤 이유를

대도 정당화 할 수 없다. 세계를 이끈다는 두 제국의 폭력성만 보더라도 세계평화시민의 꿈도, 지향 방향도, 방법론도 보이지 않는 대혼란기이다. 국가 초월적 힘의 정당성은 언제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당면한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와 기본권 억압당하는 시민시위의 국가폭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한계이고 상존하는 위기이다. 제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압도하는 현재로선 풀 답이 없어 보인다. 오늘 말하려는 한국 민주주의와 민중의 주제도 이번 사태가 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과 세계시민이 이 혼란에 동참 할 필요는 없지만 제국들의 국가폭력에 세계평화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낼 필요가 있다. 유엔도 못하고 G7, G8 국가들도 미중 싸움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민주주의와 민중(시민)을 돌아보는 담론들은 시의성이 있다. 그중에서 민중신화와 사상은 핵심 주제다. 나는 민중의 신화와 사상을 엿보는 단초로 우리의 굿문화와 사상에 주목해 왔다. 민중신화는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창궐시대에 산산이 부서진다. 제국은 노예제 유혹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 왕국이 공화국 국가로 이름만 법제화 했지 제국의 경찰과 군대의 폭력은 노예제 시대보다 덜하지 않다. 오히려 신무기와 신정보기술로 통제력이 고도화, 지능화, 일상화 되었다. 폭력의 규모를 키워온 제국들은 제국의 힘을 자진 포기하지 않았다.

왕권에 대항하는 민중영웅 장수설화의 결론은 모두 같았다. 날개가 꺾인 장수가 되거나 날개가 달린 애기 장수가 태어나도 우환이 두려워 미리 아기를 죽여버린다. 민중의 꿈이 싹수부터 잘려나가 신화가 죽은 경우이다. 도깨비 설화는 민중의 신상을 이미지로 품고는 있지만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민담으로 변질되거나 역사시대 이야기가 아닌 자연사의 민속신으로 간주되어 왔다. 소설 임궏정은 신화적 요소를 지니긴 했어도 민중의 신성한 힘을 갖고 있는 신성을 그리진 못한다. 봉건 후기의 실패하는 민란이라는 사회사적 상상력 한계 내에 있다. 이런 민중의 이야기 신화보다 차라리 민중신화 의례인 숨은 비의에서 더 확실한 민중의 신화와 사상을 찾게 된다. 내가 오랫동안 굿 의례에 천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굿은 전승되는 신화보다 굿 의례에 숨은 秘儀의 세계관을 주목하게 된다.

민중신은 죽었다.

굿은 우리의 인문교육 잘못으로 낡은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단칼로 없애

버린다. 굿은 그렇게 간단히 내치면 그만인 낡고 허접한 문화일까. 굿이 일제와 미국식식민지문화와 식민지교육으로 내쳐진 것은 이미 상식이니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입만 아프다. 21세기에도 과연 우리 내부에는 오리엔탈리즘이 없다. 스스로 자기문화를 비하하거나 맹목적으로 대하면서 자기 전통을 외면해온 것은 아닌가. 알아야 공부도 하고 계승도 할 것인데 한글 자랑은 해도 굿을 자랑하는 지식인을 거의 못 보았다. 굿은 무당굿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굿은 민속문화의 다른 이름이고 본래 이름이다. 민중이 자기문화를 민속문화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는가.. 이런 이름으로 들어는 보았을 것이다. 풍물굿, 마당굿, 대동굿, 별신굿, 장승굿, 도깨비굿, 구경굿, 뜰밟이, 지신밟이, 당굿, 장독굿, 샘굿, 문굿, 심지어는 난리굿. 1970년대 지리산 산골에서 굿 문화를 답사하던 중 만난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이 마을이 굿이 참 셋어. 의병굿 도 참 셋지.”

“할아버지 의병굿이라니요?”

“응 의병이 일어나서 왜놈들과 싸웠지. 난리굿 낫지”

이런 답사들로 굿을 연구해 보니 굿은 민중의 의례이며(뜰밟이, 장독굿), 예술이며(구경굿), 조직이며(두레굿), 조상숭배신앙이며(조앙굿, 성주굿), 자연숭배신앙(당산굿)이며, 공동체를 위한 투쟁(의병굿, 난리굿)이었다. 굿은 총체적 민속문화를 일컫는 민중문화이자 민중신앙이었다. 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 민중생활신앙이 굿(샤머니즘, 보, 뵈 등 등)이었다. 지금의 동북아의 브리야트나, 몽골 흡스골, 연해주 말갈족, 네팔의 굿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제국과 일국사회주의 스탈린에 의해 문화청산을 당했었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다시 샤머니즘 신앙으로 도로 돌아갔다. 자기 종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동아시아의 범신론으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에게도 굿이라는 훌륭한 민중신들이 있었다는 말이다. 모든 삶과 죽음 생활 속에서 굿이라는 범신적 신성문화가 있었다. 지금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자신의 원형문화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문화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있다. 그 한 복판에는 자신이 창조한 신성문화가 있고 이것으로 지역과 종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철기시대 이후에도 원형문화의 힘은 엄존한다. 마카오 홍콩 네팔 대만 심지어는 일본도 민중신들이 의례형식으로 이미지와 상징을 품고 왔다. 샤먼과 굿에 품고 있는 의례에는 신성의 내용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단군신화, 주몽신화, 마한의 유적들 에서도 신화 속의 진실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은유문화에 깃든 상징의 재해석과 지명설화에 얽힌 비신화적 덧칠을 벗겨내고 보자는 것이다. 신 우위의 전설과 민담 이전의 신화세계를

신화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것이다. 만물영혼론, 영혼평등주의, 물아동포론으로 신화를 불러 오는 것이 아시아문화를 온전히 살리는 것이다.

동학으로 모신 민중신과 민중사상

우리의 전통시대 민중문화는 굿이다. 굿은 공동체의 조직(두레굿)이고, 예술(탈춤, 구경굿)이고, 신앙이고, 놀이문화이고(통과의례, 축제), 투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굿의 세계관은 동학의 의례와 경전에도 반영된다. 向我設位가 굿 고사의례다. 최시형이 강조 했다는 제사방식- 제물을 나와 우리 공동체 안으로 향하게 모시고 제사 지내어 마구니가 채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공동체가 나누어 먹는 것이 하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다. 유교식 向壁設位를 거부한 것이다. 본래 농민의 굿에서는 고대부터 전래되어 온 고사법이 향아설위이다. 둥글게 모여서 고사반을 하고 절을 올리고 굿을 치고 밥은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두렁에서 흔히 보는 밥굿이다.



<신화의나라2> 부분도, 아크릴릭, 2019년 김봉준 작

조선왕조의 가렴주구로 도탄에 빠진 민중은 스스로 억압을 벗어날 자기 조직과 문화와 신앙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동학으로 모였다. 동학은 종교적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민중의 굿적 세계관을 모아낸다. 그래서 굿적 요소가 곳곳에서 보인다. 그리고 민중의 신앙에 기초한 조직이기에 30년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으로 빠르게 번성할 수 있었다. 天地萬物莫非待天主也에서 시작하여 物我同胞 사상으로 다시 人乃天사상으로 나아가는 민중사상은 굿으로부터 진화하였다. 범신주의라서 천지만물에서 영혼이 있다고 보았고 신령한 영혼이 있어 동식물도 있으니 동포로 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인내천으로 인간이 곧 신이 된다는 사고는 신화시대 것이다. 자연사상에서 사회사상으로 이어지는 일원론이 성립한 것이니 서양의 자연과 인간의 대립적 사고와는 결을 달리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상의 이원론적 사고에 이르러서도 자연과 인

간의 대립적 관점이 고수되고 자연을 정복과 소유의 대상으로 보려는 인간 중심주의와 다르다. 일본은 脫亞入歐를 표방하며 동아시아 속에 깃든 일원론적 사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양의 무기기술에 의존해서 국가폭력으로 이웃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속단 했다. 그러나 서세동점의 세기는 끝나가고 있다.

곳은 동학을 낳고 동학은 3.1혁명으로 이어진다. 인내천사상, 물아동포사상이 3.1로도 이어진다. 민본사상에 그치지 않고 생명근본사상이 3.1혁명 참여 민초들에게 있었다. 3.1혁명이 손병희 등 동학도들에 의해 처음에 주도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1의 생명존중사상은 비타협적 평화주의로 나타났다. 일제는 노예의 나라다. 왕이 신민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라면, 조선은 비록 지금 식민지 이지만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공화국을 꿈꾸었다. 주권자 혁명이고 세계평화선언의 시발점이 3.1이다. 베이징 5.4혁명이 3.1에 영향을 받았지만 볼셰비키 혁명과 연결되면서 성격이 달라진다. 3.1은 조선의 평화에만 그치지 않고 만민평화사상이 강하다. 생명계 만물중생이 조화롭게 사는 것이 평화다. 동학과 3.1혁명은 노예를 갖은 제국의 시민이 민주주의 제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왕의 나라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였다. 비록 늦었지만 자주적 민주화, 공화국 국민국가, 생명 존중의 공생민주주의가 동학과 3.1, 그리고 4.19와 5.18을 거치면 한 세대마다 민주혁명을 일으켜 왔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일어난 제3세계민의 혁명은 우리 겨레에게도 선도적으로 줄기차게 이어진다. 비타협적 평화주의 저항정신은 한국 현대 혁명사의 특징이다.

5.18, 그 비타협적 영혼의 신성문화

나는 5.18을 단지 민주화운동의 기념적 역사로만 보지 않는다. 물론 한국 지금의 민주주의는 5.18로부터 시작되고 5.18로 비약적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늘 거기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역사 해석이 그치는 것에 불만이 있다. 5.18은 민주화운동의 결정판이지만 그 이상이다. 다시 10일간의 무장투쟁을 주목하자. 그 비타협적 무장투쟁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지금까지 언급한 역사적 평가를 다 인정하고도 남는 영역이 있다. 이분들이 무장투쟁에 가담하였던 신념이 무엇이었던가. 애국, 국가, 애향심... 뭐 이런 수준의 신념인가. 여기에 함정이 있다. 목숨을 걸었던 그 비타협적 투쟁의 끝은

어디인가. 독재 타도, 김대중 석방 등은 1차적인 사회적 요청이고, 5.18 무장 투쟁의 신념은 그 너머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비타협적 평화주의가 민중영혼의 세계다. 그 당시 민주화가 이루려 했던 국민직선제 대통령 선거나, 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아니다. 결과론이지만 그 정도라면 목숨 바쳐서 지키려 할 문제도 아니다. 민중의 영혼이 지키려 했던 신성한 세상을 잃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민중신관, 즉 민중의 영혼관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탐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저 철기문명이 만들어온 지배 권력의 물신주의 너머 나라도 없던 아득한 종족 공동체의 꿈, 원형의 신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지배권력과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목숨 바친 비타협적 투쟁을 헤아리지 못한다. 국가가 국가 같지도 않은 폭력집단에 불과한 진상을 낱알이 알게 되면서 그 어떤 국가적 권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분들이 꿈속에서 라도 갖고 가려던 나라는 무엇이었던가. 나는 이것을 민중의 나라, 그 자신의 신성한 세상을 믿었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그렇다. 폭력과 죽음 앞에서 맞섬이다. 배수진을 치고 맞서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려 했던 남도의 나라 민중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냥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도의 5.18에서 민주주의가 국가폭력에 반대하며 제국의 내정간섭도 배척하며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은 생명민주주의다. 생명을 죽이는 그 어떤 폭력도 반대하는 생명민주주의이다. 자아와 공동체 사이가 정을 나누며 돕고 살아가는, 이웃하며 살아가자는 평화민주주의이다. 당시 무장투쟁으로 끝까지 항전하다 간 청년들의 영혼은 자유의지가 단순히 대통령직선제나 민주인사 석방 수준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애석해하며 40년을 한결같이 기리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선에 들어간 젊은 청년의 자유의지, 앓던 여학생이 끝까지 병커에 남아서 전선기록을 챙기려 했으나 내보냈던 심정들, 들불야학을 하며 공부 못한 노동자들을 공부시키던 야학 공동체 청년들, 무수히 밀려드는 시신을 옴하던 시민들, 항쟁의 주역 구두담이, 배달청년, 거리불량배, 대학총학생회 임원들.... 이들 청년들의 운명을 건 비타협 투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직시할 때가 되었다. 혁명기에는 혁명적 지도자가 나오는 법이다. 대통령직선제만 되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기다렸던 민주인사가 군사쿠데타의 국가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다. 혁명기를 혁명적으로 행동 한 김재규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5.18의 목숨 건 비타협적 항쟁자들을 피해서는 이 1980년의 혁명기를 설명할 수 없다. 김재규

를 변론 했던 강신욱변호사가 이런 일화를 전한다. 김재규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을 적에 강신욱 변호사는 양김을 찾아가 김재규의 구명운동을 부탁한다. “양김이 김재규가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니 ‘내란 목적’이란 죄명은 벗게 발언을 해 주면 국민들도 공포 통치를 벗어나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져 구명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는 요지의 부탁이었다. 그러나 두 분 다 이를 거절하였다.

이 이야기를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다. 그래, 혁명기에는 혁명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두 분은 직선제 대통령 선거만 되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김재규에 의해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미 대통령은 죽었고 군부의 정변이 일어나는 때에 국민과 국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시대에 사는 데 평화시대 대선 정국이 저절로 되돌아 올 수는 없었다. 혁명기는 혁명적 지도자가 나타나야 마땅했다. 그러나 혁명적 결기는 없었고 양김도 중앙의 정치가들도 이미 손 놓고 포기했고 김재규와 5.18 무장투쟁 전사로 이어졌다. 변방에서 고립되면서 좌절한 혁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에야 총선 승리의 힘을 빌어 1980년의 좌절한 혁명에서 빛나는 무장투쟁 영웅들을 직시하는 형국이다. 김재규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전사들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성찰지다.. 여기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늘 반쪽자리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피하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한국민주정치의 중앙정치세력의 적대적 공생으로 독점하는 국가 존재의 반민중성을 탈피할 수 없다.

매년 5.18을 형식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걸 보면서 드는 솔직한 생각이다. 산자들에게 지원금 몇 푼씩 나눠주고 죽은 자들의 묘역에서 참배만 하면 모면하고 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질곡이 되어버렸다. 발포 명령자도 못 밝히는 5.18 기념, 죽은 사람의 숫자도 정확히 모르는 5.18기념, 아직도 민중항쟁자를 폭도이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침입한 무장간첩이라고 하는 5.18기념이다. 이런 엉터리 기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바로 잡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왜? “5.18은 무장투쟁이 핵심이고 무장투쟁은 최후의 항쟁이 핵심 중 핵심이다!” 라고 왜 크게 외치지 못하는가. 지금까지 피해자의 슬픔이 주로 언급되는 5.18 기념행사인데, 5.18은 최후의 무장투쟁을 주목해야 한다. 4.3항쟁도 있었고 여순항쟁도 있었지만 5.18처럼 비록 열흘이지만 적을 몰아내고 한 도시 전체를 해방구로 만든 항쟁사는 일

찍이 없었다. 이 승리의 날들을 주목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해방항쟁의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나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5.18의 민중신화 이야기, 인문적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5.18은 현대신화의 조건을 갖추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진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신화이며 신화상징이다. 역사에 사색이 없으면 진가도 발견하지 못한다. 5.18은 충분히 이런 민중신화의 조건을 갖춘 민주주의 신화이다.

촛불혁명의 뿌리와 즐거와 열매

촛불혁명은 누구나 다 아는 현대사이지만 역사의 사색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김종철 언론인은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란 저서에서 촛불혁명의 뿌리는 5.18이고 80년대 민주화운동사라고 했다. 나도 5.18 전사를 가슴에 품고 투쟁했었다. 촛불혁명은 5.18 37년만에, 유월혁명 30년만에 부활하듯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과거 우리 혁명사에서 보이는 평화민주주의와 공동체적 연대감이 나타난다. 그리고 과거의 혁명에 참여 했던 청년이 어른이 되어 가족들과 같이, 가족을 이끌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혁명적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일관되게 보인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광화문 시위, 그전에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유출사건 때 온 국민이 참여한 연대의식, 그리고 축구4강 신화 붉은 악마 응원집회, 미선양, 효순양 미군 장갑차 압살 사건 시 평화시위 등은 모두 천만이 넘는 시민의 연대로 펼쳐진 평화적 대중행동이다. 이들은 모두 5.18 광주민주항쟁에서 보여준 평화민주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 민주화운동사에 뿌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신화의 나라1- 붉은 악마에서 촛불혁명까지> 아클릴릭, 2019년 김봉준 작

촛불혁명은 다시 또 미완의 혁명이다. 지금 정치권력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바뀌었을 뿐 사법적폐, 언론적폐, 경제 불평등 심화는 거의 그대로이다. 적폐 청산에 피로감이 쌓이니 그만하자, 통합의 정치로 가자는 소리가 언론에 많이 들린다.. 다시 구적폐는 수면 아래로 숨고 다음 시민궐기 때까지 한 세대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동학 이후 120년의 혁명사를 갖고 온 한국민이다. 민주주의는 끝없는 미완의 길이라지만 이제는 정권에 더 속을 선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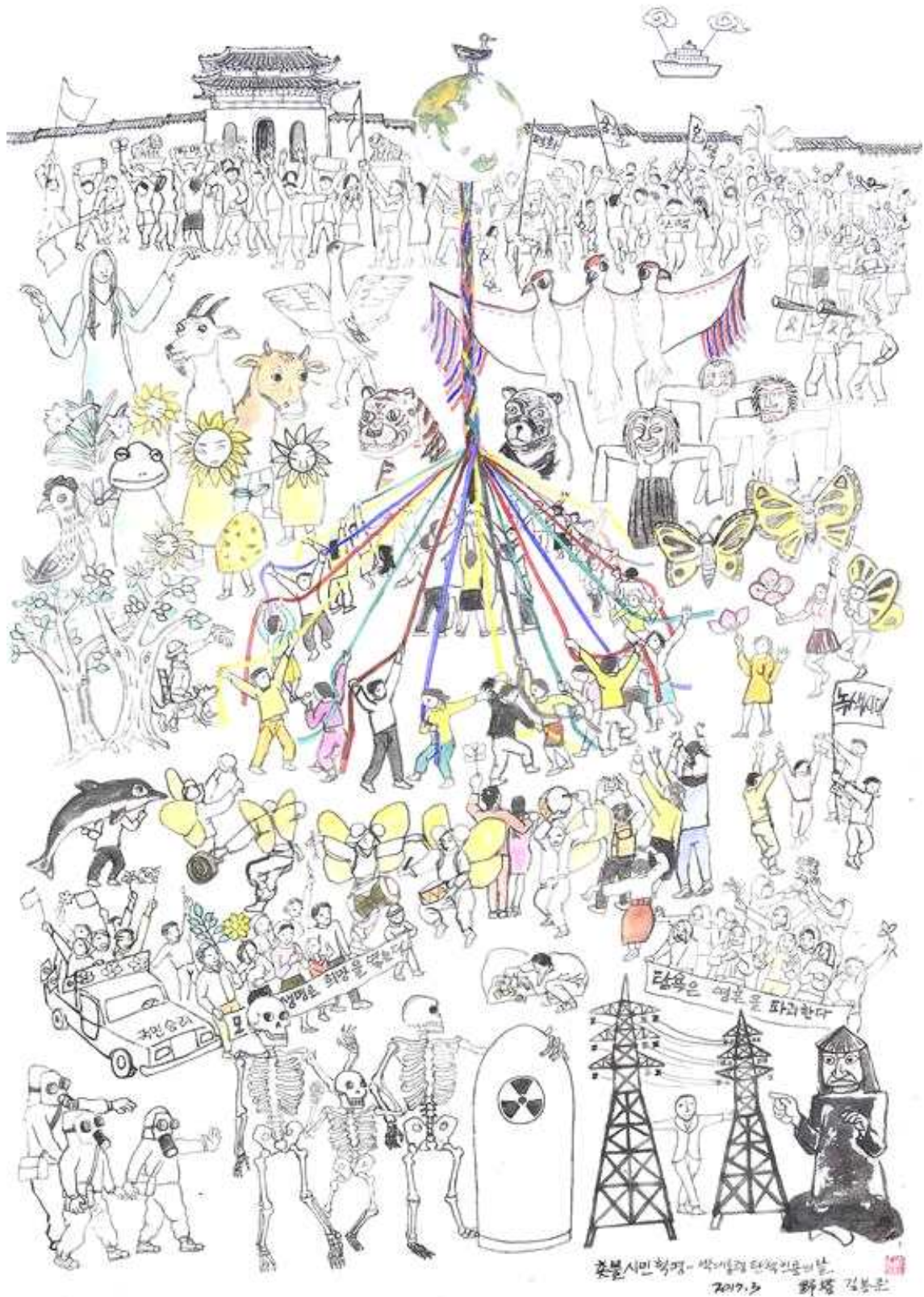
도 없고 거짓 뉴스도 안 통하게 되었다. 언론이 고쳐지지 않으면 SNS와 유튜브가 있고, 사법부가 부패하다면 시민이 압박할 수단도 더 많아졌다. 문제는 경제 권력구조의 개편 없이 민주주의가 진전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특히 IMF 이후 국제금융자본에 지배력이 넘어간 대기업과 공공기업과 은행이 많다. 이익을 내도 이익금이 해외로 유출된다. 보다 쉬운 해고가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이해 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에 과반수가 넘는 시대이다. 거기다 코로나19 이후 대량 해고가 속출하고 자영업과 소기업부터 문을 닫는다.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없는 경제가 장기화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혼란스러울 수록 원칙에 충실하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사는 민중사건과 민중생활사 양면을 같이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행동양식과 사유양식의 특징을 본다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한국은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추종자가 아니고 선도자이다. 노예와 수탈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제국의 시민사회가 계약으로 성립하며 이룬 민주주의 역사와 한국 민주화는 다르게 자생적 동력을 갖춘 제3세계형 민주주의이자 장기적 민주혁명의 역사다. 2. 동학혁명, 3.1혁명, 4.19혁명으로 다시 5.18혁명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독창적 민주주의 사상사를 세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폭력과 지배력에 대응한 평화민주주의이고, 지역 공동체 보존의 생태지리적 저항인 생명민주주의다. 3. 오랜 수난의 역사 속에서 저항하면서 항체 내성이 깊은 민주주의 문화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한국은 위기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라고 말 할 정도다.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뒤엎은 거대한 사건이다. 수백만 확진자가 생기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다. 전쟁보다도 더 혹독하게 바이러스와 눈먼 전쟁을 치른다.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시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정부들은 대응할 정책을 몰라서 허둥댄다. 세계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신자유주의 자본은 국경 폐쇄로 길을 잃고 다시 국가주의와 신냉전 질서로 가고 있다. G2국가는 체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세계평화와 공존공영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은 그동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의 체계를 발 빠르게 갖추었다. 방역지침의 투명성 개방성 자율성의 원칙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원칙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선진국이 된 것은 오랜 민주화운동을 겪으며 만들어온 한국형 민주주의 문화가 만든 결과다. 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 소개된 것이다. 여기에 자긍심이 높아진 국민은 20대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 역사성을 따르려는 정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동학혁명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120년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돌이킬 수 없는 능선까지 진행되어 왔다.



<촛불혁명도-탄핵의 날>한지붓그림, 120호. 2016년 김봉준



<촛불혁명도- 승리의 날> 한지 붓그림, 2017년 김봉준 작

민중, 민중문화, 민중신화와 사상적 고찰

‘민중은 계급이 아니고 사건이다.’ 민중신학에서 언급된 학설이다. 사회적으로 변방이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이며 정치적으로 억압 받는 자로 단순히 계급적 단위로 민중을 본다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된 민중계급의 변질된 계급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 역사적 사건에서 반폭력, 비민주, 반인권, 가혹한 불평등과 반민중에 반대하는 민중적 진실의 편에 서서 역사에 참여하고 행동한 자들을 사건과 일 속에서 민중으로 본다는 것이다. 민중을 배신한 지식인이나 변질한 가난한 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 민중이다.

7,80년대 민중문화운동이 중요한 것은 범신론을 이해하고 민중의 신성문화를 학습하고 계승한 점이다. 이 문화운동은 두가지 점에서 시대에 기여했다. 하나는 민주주의 문화를 내재적 가치로 해서 민중과 민중문화를 발견하고 계승 전파한 점이다. 전통민주주의 문화의 마당성이 소통과 나눔의 문화이고 정과 연대감을 나누는 놀이형식을 갖고 있었다. 문화패들은 민중과 더불어 문화운동을 하였다. 당시 농민회 속에 들어가 전국적으로 풍물굿을 전파한 것이나, 노동조합에 풍물패를 만들어 파업과 집회에 굿을 사용하고 민주집회에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전통민중문화를 계승하는 운동을 문화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정신이 정치 민주화였음으로 민족주의 한계 내에서 굿을 보았다. 민중신, 민중의 신성문화를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적극 해석하고 진화시키려 하지 못하였다. 굿을 민중문화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소위 서구적 이성주의에 포섭되면서 자기문화를 오리엔탈리즘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문화의 정체성을 깊이 헤아리려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 법제화와 시민 조직화만으로 과연 한국의 문화는 진화할 수 있는가. 문화개혁과 종교개혁 없이 사회개혁이 완수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특수성에서 자라나는 보편성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가. 촛불혁명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다시 묻게 된다. 이제는 자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문화민주화를 이루어 온전한 평화시대를 성취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이 양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중문화를 어떻게 보고 성찰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민주화운동으로써 민중문화는 보다시피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생활 속 문화로써 민중문화를 찾을 때이다. 핵심은 신성과 치유의 문화다. 우리는 민중문화에서 신성을 아직 못 찾았다. 신성한 힘을 발견 해야 치유문화도 창조하는 데 말이다. 그저 민중문화라 함은 풍자와 해학, 공동체문화이며 민주집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드는 민중가요나 풍물 정도로 알고 있다. 내 삶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나와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화가 모든 민중문화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잇는 데도 말이다. 신성의 회복 없이는 문화는 한낱 수단에 불과 하다.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치유하고 삶으로 완성하는 역사가 못 된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곳을 보자는 것이다.

칸트와 니체의 오랜 대립각을 보자. 둘 다 초월을 말 하지만 칸트는 순수이성이 보편적 이성이 되어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기성 종교가 아니라 이성의 종교가 세계평화를 만드는 초월이었다면, 니체는 인간이 만든 도덕률 벗어버리지 않고는 위선이다. 초월은 본성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이성과 본성의 대립을 극명하게 본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립과 투쟁은 지속된다. 오늘날 EU공동체에서 분명히 들어난다. 코로나19사태를 맞이하여 국가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국가통제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시민은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기기 싫어서 사생활 침해에 항의한다. 도덕률과 자유가 극명하게 충돌한다. 칸트가 꿈 꾸던 세계평화질서는 커녕 유럽연합을 결성한 취지마저 무색하게 자국이기의 국가주의로 돌아간다. 니체는 국가적 도덕률 해체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자유의 의미를 밝히지 못했다. 니체를 보면 비판정신은 초월적이나 대안 없는 허무주의로 서구 세계관의 한계를 본다. 오늘날 시민의 자유와 국가와 시민의 책임과 의무 사이에 큰 간극을 본다. 이동권 제약에 저항하는 시민과 이를 억제하려는 공권력 사이의 불신도 깊다. 미국에선 C19에 겹쳐서 흑인 과잉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행하는 살인적 인종차별이 전미국에 흑인과 소수민족 인권탄압 항의시위로 번지면서 총기를 소지한 경찰과 시민 사이의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자유시민과 자유의지를 조직한 민주정부라는 관계의 민낯이다. 중국의 전체주의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랑도 무색하게 되었다. 칸트가 그렸던 초월적 이성주의도, 니체가 외쳤던 자유로운 영혼도 현실은 자율에 기초한 자유도,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자유도 아님을 알게 한다.

통제가 안되는 혼란이 계속되는 C19시대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제 G7 갖고 안되니 새로 세계의 지도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중 사이에 끼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략적 모호함만 지키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세계 지도국 지위는 바뀌고 있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짜야 할 판이다. 서구의 세계관과 지도력에 한계가 왔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국가를 봉쇄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높은 시기다. 한국은 민주국가의 최상위 모델국가로 갑자기 부상하는 시대에 온 것이다. 이런 국제적 위상의 변화가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결과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민주주의 역사 한복판에 5.18이 있다.

민중국의 신화와 사상

숲처럼. 숲이야말로 못 생명이 자라고 번창하고 다 자란 것은 사라져가며 밑거름이 된다. 여름과 겨울의 반복하며 채움과 비움이 순환하고 생명의 약동으로 신성하면서도 싱그러운 공간을 유지한다. 마당은 숲의 소도처럼 신성지로부터 왔다. 본래 숲이었던 것을 신성지로 점지하고 여기 조상을 묻고 또 묻으며 조상신이 깃들게 되었다. 당숲의 당산목은 그 자연을 대표하는 우주목이다. 단지 식물만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마당은 여기서 온 것이다. 서라벌의 박혁거세 탄생 신화가 거한 계림, 고조선의 신단수가 있는 숲은 본래 자연을 문명으로 시작하게 한 마당이다. 마당은 그래서 '숲 문명', 즉 자연문명의 성소다. 근대적 사회질서로 보면 무질서한 것 같지만 본성의 질서를 이루고, 혼돈인 것 같으나 카오스모스이다. 마당의 세계관은 동이족이 숲을 향한 이상향의 미학이다. 부여도 고구려도 발해도 삼한도 모두 숲에서 시작하고 숲으로 돌아갔다. 조상은 죽지 않고 돌아가셨다. '문명의 앞에도 숲이었고 문명의 뒤는 사막'인 것이 아니고 숲이었다. 역사의 유적으로 삶의 터를 도시화하여 영구히 인공화하려는 도시문명과 달리 숲이 무성한 문순 기후대의 고대 동이족 문명은 숲 문명을 이상사회로 여긴 것이다. 이 세계관을 의례와 상징과 가락으로 갖추며 전해내려 온 것이 풍물이다. 그래서 풍물은 인간만을 위한 타악기가 아니다. 조상의 영혼과 우주만물 대지신령을 '놀구 나게' 축원하는 숲 문명의 제의였다. 마당은 마을과 숲을 하나로 하는 의례터이고 당숲 마당이었다. 민중문화의 시원 마당예술은 이런 세계관에서 꽃 피운 것이다.

풍물은 애초에 굷이고 민중문화란 굷적 세계관과 굷문화양식을 빼고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앞서 말했다. 신성과 치유의 문화 창조가 없이 기성의 민중문화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답이 안 찾아질 적에는 본래로 돌아가는 법이다. 동학이 굷에서 답을 찾았듯이 민중문화도 굷에서 답을 내야 한다. 굷은 민중의 민속문화에 다름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를 입증하는 논술을 앞에서 한 바 있다. 풍물도 굷의 일부라 했으니 풍물로부터 신화와 치유의 힘을 살펴보자.

풍물이 본래 살림살이의 문화양식 자체라는 것이다. 공동체의 살림살이- 가족, 조상, 자연, 마을, 마을연대, 나라의 살림살이 양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서구식 근대적 예술장르에 포섭될 수가 없다. 예술이며 신앙이며 조직이며 집회인 다중성을 굳이 나누어 이해하려 하지 말자. 근대 장르 예술이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기능적 편이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교육과 산업과 도시구성의 분리화를 기초로 시스템을 갖추고 예술이 여기에 기능적 역할을 하게 분화한 것이다. 삶의 본원적 총체성과 대립된다. 살림살이는 본래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분리될 수 없는 생존양식이다. 풍물이 여기서 왔으니 문화이고 예술이고 종교인 이유도 여기 겨레 살림문화의 원형성이 이어 오기 때문이다. 완전한 근대기로 접어들지 않아서 이런 문화원형성이 잔존 한다기보다 민초들의 삶의 양식과 세계관이 자연살이 삶이다. 강제적 서구식 근대화기를 거치면서도 단절했기 때문에 겨우 도서 산간지역에는 살아남아 196,70년대 까지 있어왔던 것이다. 어떻게 끈질긴 생명력이 가능한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식민지를 거치고 산업화를 거쳐도 우리 겨레의 집단무의식의 형식, 즉 문화원형으로, 어머니 문화 밈(Meme)으로 끈질기게 이어 온 것이다. 굷 또는 풍물은 동이족 문명권의 특성적 원형이다. 카오스가 강하여 국가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연살이 야성의 기질이 전이되어 온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를 동아시아 미학에서는 무질서의 질서, 무기교의 기교, 구수한 큰 맛, 혼돈 속 질서 등으로 불러 왔다. 그것은 무의식계가 이끄는 본성의 질서에 대한 원초적 갈망이 종족의 DNA로 강하게 내려 온다고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한미일 전통타악기의 4박자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그것은 4박을 한 박마다 쪼개도 2분박으로 나뉜다. 그러나 조선의 그것은 춤박자 3분박으로 쪼개지며 합치면 12분박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더 변화가 많고 역동적 가락으로 되며 심박과 엷박으로 더욱 풍성한 변화가

락을 연주하게 한다. 삼박은 왈츠 풍으로 춤 박이며 놀이 박이고 사박은 힘차고 질서정연한 행진풍이며 군대식 오와 열을 맞추어 가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가락이다. 가락은 수적 관념인데 전자는 홀수 역동수이고, 후자는 짝수 안정수라 본다. 풍물 원가락 갠지계(덩더쿵) 가락은 본래 홀수 가락이었다. 일과 놀이가 혼일한 가락이었으나 집단 노동과 전쟁의 행진을 만나며 4박이 얹혀진 것으로 보인다. 사박 안에 숨은 삼박은 행진하면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겨레의 독특한 삼채가락으로 정립하게 하였다. "춤추며 싸우는 형제 그림다."라고 전해 오는 노랫말처럼 춤과 일과 싸움은 영적 곳으로 혼일하였다.

고대문화는 본래 생태지리적 문화유산인 것이다. 특히 우리 겨레의 자연살이 삶은 문화의 양식에서 생태지리적 야생성을 정서형식으로 전해 온다. 겨레의 어느 예술보다 풍물은 야생성을 가장 강하게 전해온다. 풍물의례는 어떤 종교의례보다 원초적 야성의 의례로 샤만이즘 의례와 같다. 이 의례에는 신화를 지니고 내려 왔었다. 마을은 자연살이 삶이었고 자연살이는 앞내 뒷산에 의지하며 물과 동식물이 무성한 대지의 삶이었으니 당연히 자연의 신성한 힘과 질서에 감사하고 귀의 했다. 밥이 곧 제사이고 사냥이 곧 굿인 것이다. 철기시대 불교 유교 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오래된 자연살이와 자연신앙의 원형성을 이어온 것이 풍류도(儒佛仙包畵 三教)이고 풍물이다. 풍물은 삼한시대에 주류문화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악기 편제는 추가되고 바뀌었다. 북과 나무로 두드리던 타악기에서 청동기, 철기시대를 맞아 쇠 악기가 들어 왔다.

풍물은 자체 신화를 갖고 있었던 바, 신화의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신화미술관 학예실에서 자체 연구 결과 제주도 분향풀이- 문전본풀이신화가 지신밟이(뜯밟이) 원형신화임을 밝혀 낸 바 있다. 한 집안 씨족의 위기와 시련이 서사무가로 전해진다.

집주인 양반이 돈 벌러 먼 항해를 떠났으나 소식이 없어 아내가 남편 찾아서 먼 길을 찾아 나섰고 천신만고 끝에 찾았으나 첩을 데리고 살림을 차린 남편을 만난다. 둘을 다 데리고 집으로 귀향을 하는 데 첩의 사악한 질투로 아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를 안 자식들이 복수하여 첩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도 죽고 5자식은 그 집에 오방위의 신장이 되고 어머니는 조왕신, 아버지

는 성주신, 첩은 뒷간 신이 된다는 신화이다. 여기에 풍물 지신밧이에서 고사반 할 적에 나오는 가택신들의 원형을 본다. "오방신장 합다리 굿에 객구 잡신 몰아내고 명가복가로 굿을 치소~" 할 적에 그 오방신장은 집안의 아들들의 영혼이다. 앞문 뒷문 좌우문 중앙 마당을 지킨다. 살림의 신화는 제주 문전 본풀이 신화에 잔존하고 있었다. 고래, 신석기시대부터 씨족의 살림을 지키는 의례로 풍물이 전해 온 것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들당산에서 문굿, 조왕굿, 샘굿, 천룡굿, 성주굿, 뒷간굿, 외양굿, 곡간굿, 마당굿, 다시 문굿으로, 마을마당으로, 날당산으로 이어지는 지신밧이는 살림살이의 신성을 모시고 명복을 염원하는 신화의례로 이어진다. 우리식 성지순례를 하는 이동식 미사다. 모든 신화는 의례와 같이 갔으며 거기에는 신화와 상징과 예술과 놀이가 혼일하게 어우러진다. 이 살림문화의 총화가 바로 대보름의 지신밧이(영남), 뜰밧이(호남), 마당밧이다.(중부 북부)

삼한시대 이전의 원형문화가 굿이다. 저 동북아 동이족의 혼일한 영혼문화 샤만이즘 문화를 아직도 짐작하게 하는 것이 풍물이다. 겨례의 본원문화가 아직도 동아시아 끝에서 전해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나 또한 여기 기대어서야 겨우 캄캄했던 예술창작의 길을 밝힐 수 있었다.

영혼의 문화, 숲 민주주의

근대로부터 태생하지 않은 풍물은 고대의 인류문화정신을 포지하고 있기에 근대주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필자의 생각이다. 칼 폴라니의 공동체 경제론이 대안경제론으로 떠오르고 우리의 두레경제에서 협동조합의 원형을 다시 배우는 마당에 문화에선 중심을 찾고 돌아가 거듭 내려면 풍물로부터 적극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고대예술이다. 그것은 단지 장르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조직, 종교문화 등 공동체문화로서 풍물에서 다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풍물의 신명은 분열적 삶으로 갈 수록 불행해지는 시민에게 내면의 행복과 생기 있는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소중한 지표문화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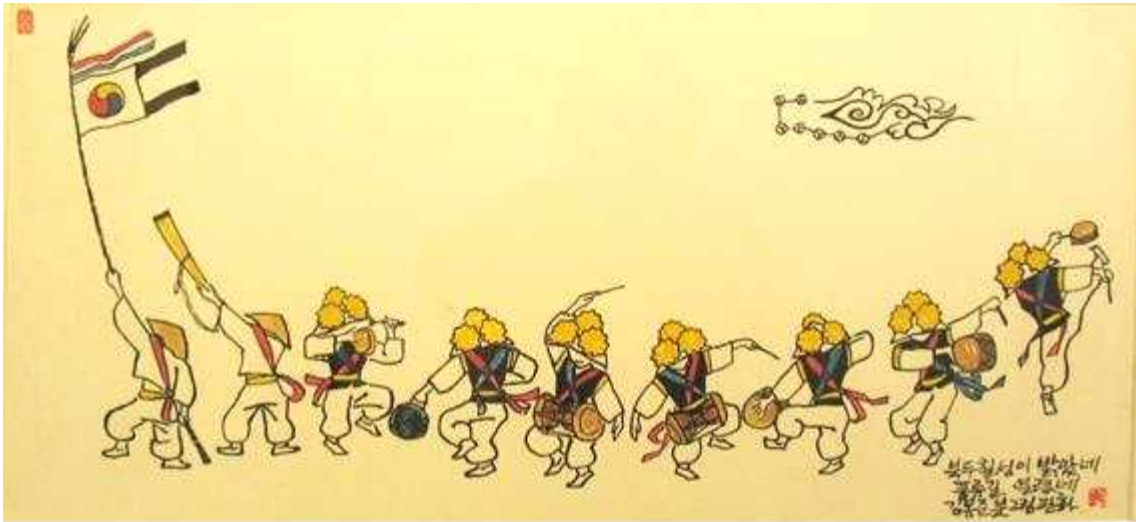
풍물을 직접 다루던 아니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신명의 문화에서 생

활의 가치를 재발견 한다면 생활의 미학- 삶의 의미(진)와 과정(선)과 목표가 아름다움(미)에 이르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신명의 문화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명, '생명 에너지가 확대된 자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맑은 영혼의 충족감이라고 할까, 열린 영혼의 교감이라 할까, 싱그러운 힘이라 할 영혼문화가 풍물에는 이어 온다. 풍물의 종교적 의례로도 전해 온다. 동적인 참선이다. 단지 의례형식이 존재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질편한 터울림으로 자신과 조상신의 영혼을 깨우며 교감하는 뜰밧이이다. 이 영성문화가 뜰밧이 의례이다.

1970년대 지리산 뜰밧이를 경험한 필자는 조왕곶에 참여하는 아낙들의 신심에 놀랐다. 치배보다 지극한 정성으로 고삿쌀을 바치고 조왕신에게 빌었다. 부엌은 잡구잡신이 떠나가도록 풍물로 올려뒀고 따라 나온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의 명가복가를 함께 축원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샘곶, 철룡곶 마당곶... 이 신앙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순승하고 고양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내가 신화미술관을 차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 신화미술관을 아카이브 하면서 풍물의 뜰밧이 신화가 제주도 문전본풀이 신화에 있음을 발견했다. 신화가 있는 데 우리는 의례만 하고 있었지 그 의례 속에 담긴 텍스트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물론 의례가 있어서 상징화 신화를 품고 있으니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당시에는 잘 알고 있는 신화 이야기였을 것이다. 한국신화 이야기 책에도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을 신화미술관을 하면서 밝힌다.

신석기시대부터 내려오는 대지의 찬미이고, 대지신과 함께 기쁨을 찬미하는 축제로 풍물은 시작되었다. 고대 인류는 대지와 자연을 어머니 대지로 은유하며 종족마다 개성 넘치는 문화를 창조하였다. 대지와 자연과 우주의 신성한 힘을 어찌 다 말로 설명하고 이해 하랴, 침묵의 은유로 자연의 질서를 나타내었으니 그것이 상징이다. 풍물의 상징들을 의례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애니미즘은 莫非侍天主也로, 토템이즘은 萬物一如로 조선 후기 동학으로 계승되는 것이다. 이 문화적 계승과 진화를 갖게 해 준 힘이 신성의 은유문화, 풍물이다. 동학은 풍물과 굿문화의 진화이지 갑자기 천재적 교주가 홀로 세운 것이 아니다. 최시형의 向我設位도 그렇다. 선천시대 왕권적 제사가 벽을 향해 있으면서 그 사이의 祭物은 마귀가 채 가는, 지배 권력에 바쳐져 왔던 것을 해월 최시형 어른이 제사는 내 안에 한울님에게 지내는 것임으로 제사상도 나를 향하게 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

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지만 본래 향아설위는 풍물 마당고사에서 늘 행해 온 밥긋이였다. 고대부터 민초의 종교와 예술은 항상 우리 공동체를 향해, 생명의 영혼을 향해, 과거 살았던 자와 지금 사는 자와, 앞으로 살 자를 향해있었다. 나라 없는 나라이고 자연으로 돌아간 부족의 조상을 숭배했다. 그것이 세 번 대지를 향해 뿌리는 고수레의 의미이다. 풍물은 그래서 대지 영혼의 문화이고 숲 민주주의 문화이다.



<북두칠성이 앵도라지도록> 붓그림판화, 1997년 김봉준 작

치유문화를 창조하는 재신화 시대

세계사적 흐름에서 문화를 살핀다면 지금은 근대, 근대문화라고 한다. 현대는 근대에 당대성을 강조한 개념이지만 같은 말이다. 근대는 물론 자본주의 시대를 말하며 자본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이익을 취하며 사적 소유권을 확대한다. 생산수단인 자본과 노동과 토지(자원)으로 사적 소유가 보장되지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히 시장의 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폭력의 권리를 부여한다.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은 형성되고 지켜지고 교체된다. 직접적 민주대신 간접민주제로 정당이 국민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데, 대신 국민에게는 선거권과 인권과 시장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정치경제 제도는 인류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근대주의는 지구 자연과 인류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따라왔으니 자본제국에 의한 약소민의 수탈이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노정 시켰다. 자연의 약탈까지 이어진 3가

지 모순은 근대주의가 극복해야 할 인류의 과제가 되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주의로 가속화되어 자연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키며 인류문화의 종 다양성을 파괴시키며 전일적 세계자본체제화 했다. 이러한 오늘 세계 인류와 자연은 지금 제국적 수탈과 노동의 착취와 자원의 약탈 3가지 모순에 허덕이며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으니 새로운 세계체제를 갈망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99%가 1%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고 항변하게 되었고 다시 작은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다. 거기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국가간 장벽이 높아지며 자국이기주의가 심화된다. 국가자본주의가 강고해지며 시민의 자유가 한층 더 제약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또 다시 위기가 오고 노예제를 갖지는 못하지만 권력의 욕망 전체주의 유혹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 대로의 답을 찾게 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민주주의를 자생력으로 성취해온 역사가 있기에 그나마 가능하다. 스스로 만들어온 나라이기에 자생력과 위기 대처의 면역력 좀 더 생겼고 나라는 계속 창조하며 진행될 것이다. 이제 인류는 시민적 민주만 역량의 수준이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할 것이다.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저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하는 척만 하고 자기 이권만 챙기는 바보정부를 또 탄생시킬 것이다. 역사를 길게 보고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생태질서의 복원과 탈핵과 반전평화, 기아와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약자와 양성평등과 성소수자의 보호,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통일, 생태종 다양성과 문화종 다원주의,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세계의 바이러스 팬데믹 방역 등 오래 묵은 과제에서 새로운 지구촌 과제까지 산적한 숙제가 거버넌스 협력체제로 해결해야하며 지역과 부문의 역량이 국제사회문제 해결로 가는 그로칼리즘 시대로 갈 것이다. k방역이 세계방역의 롤이 되는 마당이고 k팝, k시네마, k아트, k민주주의, 코리아 시민의식이 바로 그로발 표준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일찍이 선도적 민주화운동을 치룬 광주와 전남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사회 모델로 주목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남들이 본다고 잘 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계를 선도할 나라와 국민적 역량을 갖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각자 자기의 위치와 전문에서 세계인임을 생각하자. 그리고 칸트와 니체도 못이룬 꿈의 세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세계시민 의식을 갖자.

한국민은 민주주의 피의 댓가를 지불 했으니 할 수 있다. 그만큼 세계사적 고난과 위기를 헤쳐 이겨 왔기에 '위기 극복을 취미'처럼 경험한 시민이다.

현대 인류는 영혼이 피폐해 있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 행복한 삶, 내면의 평화를 절실하게 갈망한다. 폭력적 국가주의와 시장 방임을 미화한 무책임한 자유로 인해 현대인은 자존감을 잃어갔다. 자긍심을 갖고 가족과 이웃이 기쁘게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거대권력과 거대자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면서 동시에 자긍심을 갖는 문화정체성을 지녀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존 종교와 국가가 대신해 주지 못하는 행복과 치유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대 종교와 교육은 자기 조직 보존으로 인해 도그마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자본과 권력은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 자기 정화능력을 상실해 있는데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가. 치유는 자기 내면의 신성한 힘을 찾아서 자기 치유로 하는 것이니 그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再神話化이다. 내 안에 신성한 힘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민중이 신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민중이 각자 자기 신을 모시고 섬기고 기르는 侍天主 養天主의 시대가 재신화화이다. 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며 물질문명시대에서 서서히 신화문명시대를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 이 필자의 주장이다. 만물의 영혼평등을 인정하고 인권만 아니라 생명권을 존중하며 나로부터의 성찰과 개혁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근대의 개혁적 수용의 평화민주주의와 탈근대의 준비인 생명민주주의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숲처럼민주주의'라 조언하고 싶다. 숲처럼 각자의 생존 공간과 시간을 배려하며 다종다양한 생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숲처럼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창조해온 새로운 인류문명이다.

成俗이 一如한 신성한 힘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서방 청년들이 신밋시즘의 좌절 이후 아시아 신화지대에서 찾아 뉴에이지 시대를 열었다. 우리의 뉴에이지 시대는 어디 안가도 이미 이 땅에도 자생하고 있었다. 월드컵을 응원하던 붉은 악마시민들에게서, 미선이와 효순양 추모 평화행진에서, 수입쇠고기 반대로 촉발한 '명박산성' 촛불행진, 촛불혁명, k방역에서 이미 '숲처럼민주주의'는 행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일상으로 愼獨하며 재신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자랑스런 역사를 신화로 갖자는 것이다. 내 안에 영성을 회복하여 행복과 자긍의 생활을 창조하는 운동인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싱그러운 힘만이 행복과 치유의 길이다.



<맞서다-포스트코로나 시대 랩소디> 흙부조, 캔파스로 약 100호, 2020년 김봉준 작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http://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지은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펴낸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2020년 6월 8일

인 쇄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0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